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9호
2022년 7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내년에 봐어요~” 제 31차 평의원 회의 ‘폐막’



미주 동창회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4~26일 3일 일정으로 LA 인근의 퍼시픽 팜 리조트 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160여 명의 평의원들과 배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서 오세정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도 참석해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하했다. <관련기사=12~14면>

“노후를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총동창회 시니어 타운 조성 ... 미주 동문들도 입주

모교의 강원도 평창 캠퍼스에 시니어 타운이 조성된다. ‘평창힐링타운’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출범한 제 29대 서울대 총동창회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정체된 모교 평창 캠퍼스 일대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휴양 명소로 만들자는 의미가 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참석차 LA

를 방문한 이경형(문리 66) 상임부회장은 미주 동문들도 평창 시니어 타운 입주가 가능하다고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상임부회장은 “사람은 나이 먹으면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이른바 ‘귀소본능’이 있는데 평창이야말로 미주 동문들이 노후 또는 은퇴 후 지내기에 최적화된 곳”이

라고 말했다. 이 상임부회장은 동문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되도록 상업성을 배제한 채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캠퍼스에 ‘시니어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상임부회장의 설명이다. 본국 총동창회의 힐링타운 프로젝트

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법대 83) 동문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모든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지사는 규제완화와 재정권한 등을 확보하게 된다. <관련기사=6면>

이음 장학금 10만 달러 기부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

노명호(공대 61)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6월 25일 LA를 방문한 오세정 총장에 이음 장학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

했다. 이날 퍼시픽 팜 리조트의 페블비치룸에서 30여 명의 동문 기부자들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오세정 총장은 “노명호 회장이 미국에서 이민자 기업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울대 동문들에 대한 봉사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모교 지원을 위한 장학 사업에 적극 참여하심에 감사드린다”며 “이

음장학금을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음 장학금은 오세정 총장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서울대 재학생 해외방문 장려 프로그램이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해외 방문을 통해 견문과 학식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데 올해 첫 사례로 15명의 서울대 장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했다. <관련기사=8~9면>

미시간, 27번째 지부 인준 이광진 동문, 회장 선출

미시간이 미주 동창회의 27번째 지부 인준을 받았다.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모임에서 미시간 동창회의 지부결성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미시간 동창회는 소속 회원이 200여 명에 이른다. 회장대행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광진(공대 81) 동문은 7월 23일 열린 미시간 지부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학의 세계
문경호 박사
관련기사=5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주중광 박사는 ‘아시안 인스피레이션’ 평생 항바이러스 연구로 아메리칸 드림 일궈 B형 간염 치료물질 개발, 인류 건강증진에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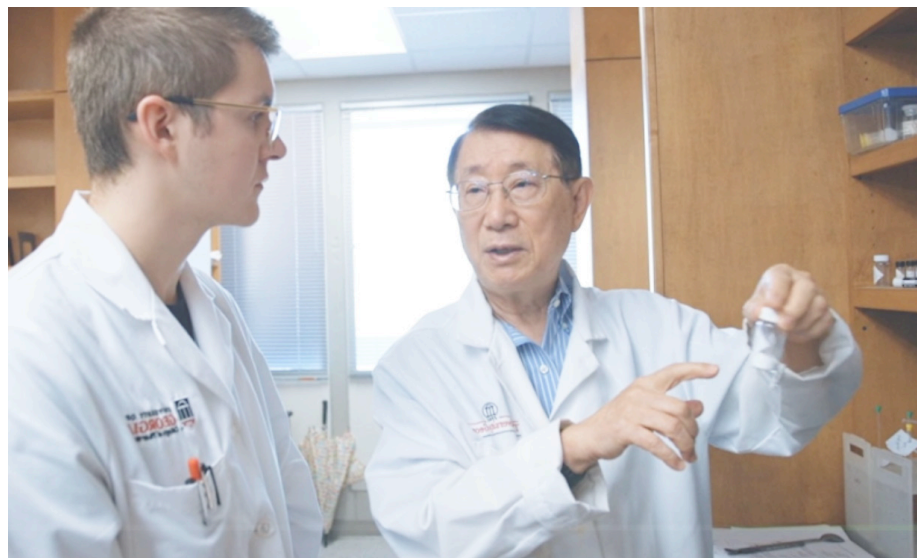
조지아의 주중광(약대 60·Chung K. David Chu) 동문이 최근 한국 콘텐츠 스트리밍 채널인 ‘온디맨드코리아(On Demand Korea)’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다. 주 동문은 ‘온디맨드코리아’가 ‘유리천장을 이겨낸 선한 영향력(Asian Inspirations)’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세명의 아시아계 인사 중

첫 번째로 주 동문을 소개했다. 주 동문은 현재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 at Athens) 석좌교수다.

주 동문은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한 우물만 폈다”고 요약해 설명한다. UGA에서 40년 동안 항 바이러스 치료제(Anti-Viral Agent) 연구에 전념했다는 것이다.



부광약품이 주중광 교수 팀이 개발한 물질로 만든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



연구원들을 멘토링하고 있는 주중광 동문. 주 동문은 UGA 석좌 교수다.



주중광·허지영 부부는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30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남다른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동문이다. 사진은 2019년 오세정(오른쪽)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

그는 과학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 “(공부나 연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님이 시켜서는 못한다. 오직 내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좋아서, 그것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out of tunnel, 즉 어느날 터널을 빠져나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 동문은 과학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며,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집념으로 살아야 하는 지를 들려준다.

약학은 100번 실험해서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한 번 성공하면 성공으로 간주한다.

그의 철학대로 주 동문은 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 마침내 터널 끝에 이르렀고 찬란한 광채를 만났다. 그 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UGA 교수시절, 주 동문은 B형 간염 치료물질인 클레부딘(Clevudine)을 개발해 세계적인 약학자의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한 UGA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주 교수님은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포스트닥 등 많은 미래 과학자들을 멘토링하고 도왔다”며 “인류의 건강에 공헌을 하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주 동문은 국립보건원(NIH)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MERIT Award’ 상 수상자다. MERIT은 ‘Method to Extend Research in Time’의 머릿글자를

따 지어낸 것으로 학계에서 흔히 ‘R37’로 불린다. 수상자는 NIH가 향후 10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UGA 역사상 이 상을 받은 교수는 주 동문이 유일하다.

주 박사 부부는 서울대 동문이다. 부인 허지영(문리대 66) 동문은 화학과 출신이다.

부부는 ‘주 패밀리 재단’을 설립해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 UGA, 애틀랜타

한인회, 애틀랜타 한국학교, 6·25 참전용사회 등 비영리 단체들은 물론 전도유망한 학생들에 장학금을 쥐 조지아에선 ‘기부천사’로 통한다.

주 동문 부부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도 ‘플래티넘 이사’로 올라있다. 각자 5만 달러씩 기부금을 내 부부 합산하면 10만 달러나 된다. 부부는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300만 달러를 쾌척한 바 있다.

부부는 “우리도 잘 살게 됐으니 이제는 사회에 되돌려줘야 할 때”라며 부의 사회환원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온디맨드코리아’가 UGA 홍보 디렉터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 동문의 기부철학의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그분의 자선과 기부는 그 어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학자금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UGA에서 열린 ‘Chu Lectureship’을 두번이나 후원했으며 연구교수 채용에 펀딩을 해주기도 했다.”

그 뿐이 아니다. 주 동문은 UGA에 강당을 기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클래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 동문은 1968년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다. 어느 ‘좋은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 공부를 해와서 조국의 과학을 빛내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주 동문은 “미국에 와서 처음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할 때,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꿈을 이뤘을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라면서도 “항상 나의 꿈을 성취하게 해 준 미국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조국이니깐... 버릴 수가 없는거”라고 말할 때는 울컥하며 말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주 동문 부부가 좋아하는 문구는 심청사달(心淸事達)이다. ‘마음을 깨끗하고 집중해서 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철학대로 살아온 때문인지 주 동문은 “청년시절에 가졌던 꿈을 거의 다 이뤄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의 성실성과 과학자로서의 열정은 세월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구와 후학양성을 계속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금도 UGA 석좌교수로서 후학들의 멘토링은 물론 대상포진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주 동문의 다큐멘터리는 ‘ondemand-korea.com’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온디맨드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지난 5월 27일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 1회 '서울대 가족 음악회.' 금난새 동문이 지휘하는 이 음악회에 동문과 가족 등 모두 12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사진=서울대 총동창 신문>

“오케스트라 화음처럼, 서울대인을 하나로” ‘마에스트로’ 금난새 남가주 신년 음악회 디즈니 홀에서, 동문 오케스트라 지휘

한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작곡 66) 동문이 서울대 가족음악회를 지휘하기 위해 새해 1월 초 LA를 찾는다. 금 동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대 음대 동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취임한 김종섭 신임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미주 동창회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첫 프로그램으로 1월 초 LA의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서도 동문출신 유명 솔로리스트들이 함께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참석차 LA를 방문한 김종섭 회장은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과 논의 끝에 금난새 초청 음악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 회장은 본 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음악이야말로 서울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다”라며 “특히 금난새 동문

은 한국은 물론 미주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에스트로여서 공연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국 총동창회는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서 ‘서울대 가족 음악회’를 열었다. 약 12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난새 동문은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동문 및 재학생 협연자들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다.

“단과대의 벽을 허물고 서울대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는 김 회장은 “이 음악회를 미주에서까지 확대해 글로벌 서울대인의 이미지를 동문들에 심어주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월말 쯤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 다시 LA를 방문, 오케스트라 구성 등 실무를 챙길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앞으로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등지에서 연주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난새는 누구? ‘카라얀 콩쿠르’ 입상, 유럽에서 활약

서울대를 졸업 후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에 유학,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세계 최고명성의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한 후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도이치카머 오케스트라, 유러피언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유럽무대에서 활약했다.

귀국해서는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등

지난 5월 서울대 가족 음악회에서 연주 전 작품 하나하나를 재밋게 소개해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인터미션도 없이 내리 2시간

공연이 진행됐지만 금 동문의 해설 덕분에 관객들은 피로한 기색이 없이 공연을 즐겼다는 후문이다.

경희대 음대 교수를 거쳐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해설있는 음악회’로 ‘전석 매진’ 대기록 ‘난새’는 ‘하늘을 나는 새’ 순수 우리말

을 지휘했다. 19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인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시작한 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힘을 기울인 바 있다.

금 동문의 부친은 역시 음악가인 금수현. ‘난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저서로는 ‘나는 작은 새 금난새’ ‘마에스트로 금난새 열정과 도전’ ‘금난새의 클래식 음악’ ‘CEO 금난새’ ‘금난새의 내가 사랑하는 교향곡’ 등이 있다.

동창회비 연 100달러 책정 10여 년째 동결, 현실화해

동창회비가 연 100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모임에서 회비 현실화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7월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동창회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연 75달러를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동

창회비는 종이값 인상 등으로 인한 인쇄비 부담과 우송료 등이 크게 올라 적자가 누적된 상태다.

미주 동창회는 회비납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동문들의 광고협찬과 기부금 후원을 바라고 있다.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회비와 기부금 등은 전액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6·1 지방선거 동문 51명 당선 학부 20명, 대학원 11명, 특별과정 20명

지난 6월 1일(한국시간) 치러진 한국 지방선거에서 학부 출신 동문 20명이 당선됐다.

당선 동문들의 출신학과를 살펴 보면 법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학·경영학·의학·사회복지학에서 각각 2명씩, 국제경제·불문·사회·영어교육·건축 등에서 1명씩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이나 AIP, SGS, FNP 등 모교 특별과정을 수료한 동문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51명으로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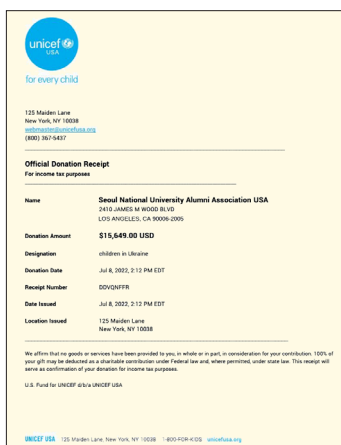
오세훈(SGS 7기)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영록(FNP 5기) 전남도지사, 이철우(ACAD 60기) 경북도지사도 동문들이다.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김동연 동문은 모교 행정대학원 출신이다.

우크라이나에 1만5천 달러 유니세프에 구호기금 전달

미주 동창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15,649 달러의 성금을 유엔 어린이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EF)에 전달했다.

성금은 동창회가 지난 5월부터 동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 모은 것으로 7월 8일 뉴욕의 유니세프 본



유니세프의우크라이나성금접수확인 영수증.

부에 보냈다.

노명호 회장은 미주 동창회가 비영리기관(501c3)의 규정에 충실,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 동창회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설 프로젝트에도 기부를 하는 등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허준이 동문
수학계 최고 영예 '필즈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로 성장한 그도, 처음부터 수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후 뚜렷한 목표 없이
설렁설렁 공부하다보니
어려운 대학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결국 3학년 1학기엔 모든 과목에 낙제했죠."**



**서울대에서 만난
헤이스케 교수와의 인연은
그를 수학의 길로 이끌었다.**

"매일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특별히 정돈하려 하지 않고
이런저런 수학 얘기를 들려줬어요.
수학 외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저를 꾸준히 만나주는 데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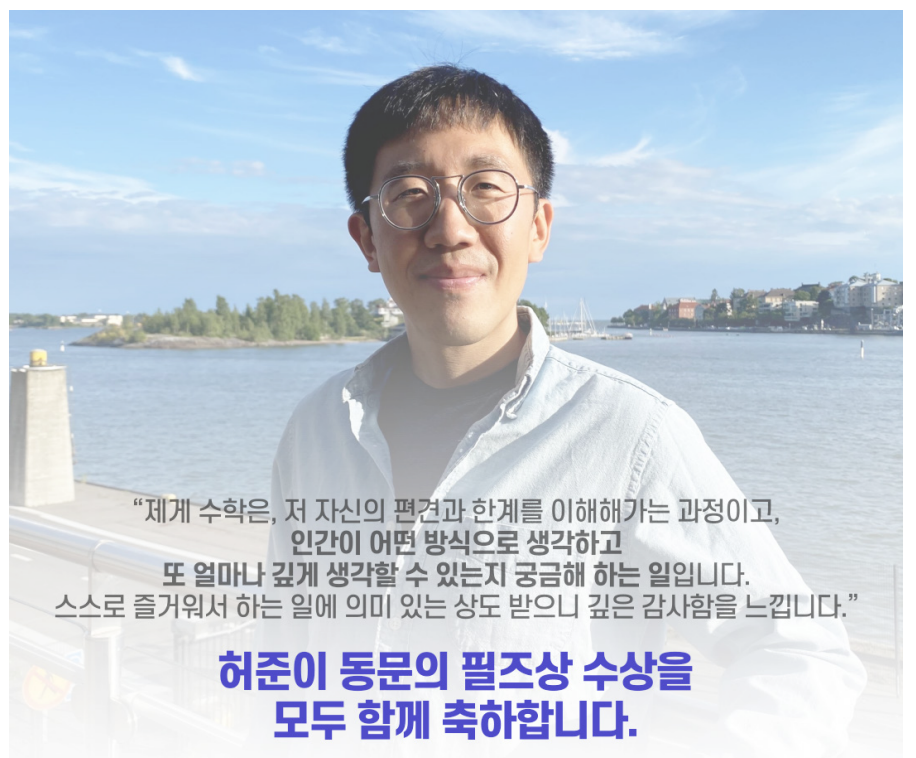
국제수학연맹에서 40세 미만의 획기적 업적을 남긴,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자를 선정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수학자대회에서 수여한다.

**허준이 동문의 연구분야는
조합 대수기하학**

대수기하학을 통해 조합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조합론과 대수기하학 두 분야에 모두 정통한 수학자만 시도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연구다.



**허준이 동문이 해결한 '리드 추측' 난제의
선행 연구는 그의 서울대 석사과정에서 시작됐고,
많은 연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뤄졌다.**



"제게 수학은, 저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에 의미 있는 상도 받으니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허준이 동문의 필즈상 수상을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문경호 박사가 알려주는 ‘수학의 세계’

수학자는 37세까지가 ‘피크’ … 나이에 민감한 학문

미국은 수학 최강국, 세계 각국서 고급 두뇌 받아들여

동문인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필즈상(Fields Medal)을 수상해 서울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 수학계에 입증했다. 필즈상은 세계수학연맹(IMU)이 4년마다 세계수학자대회(ICM)를 열어 새로운 수학분야를 개척한 만 40세 미만의 젊은 학자들에게 수여하는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노벨상은 매년 시상하며 공동수상이 많은 반면 필즈

상은 4년마다 최대 4명까지만 시상하고 공동수상이 불가, 여기에 나이 제한까지 있어 노벨상보다 받기 더 어려운 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노벨상 최다 수상국(29명)인 일본도 그간 필즈상 수상자가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본 회보는 문경호(문리대 수학과 59) 박사와 인터뷰를 갖고 일반인이 모르는 수학의 세계를 살펴봤다. - 편집자.



문경호
수학과 59

- 흔히 ‘필즈상’을 일컬어 ‘수학의 노벨상’이라 부르는데 정작 노벨상에는 수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수학이 노벨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알프레드 노벨의 수학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스웨덴 출신의 노벨은 화학자이자 공학자다. 노벨은 수학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고 전해진다.

수학이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산업에 끼치는 베니핏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해 부를 쌓은 산업자본가 다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 그렇다면 수학은 배워서 무엇에 쓰나?

학생들이 종종 수학교사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왜 학교 교육이 언어와 산수로 돼있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필요하듯이 수학은 과학의 기본 언어다.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직장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요리할 때, 간호사가 IV를 주사 할 때 수학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음식이 엉망이 되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 수학은 자연과학인가?

논란이 많은 질문이다. 학문적으로 따지면 수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것은 확실하다. 수학자들은 자신들을 과학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d Mathematics’라고 수학을 자연과학과 분리해 놓

은 대학들이 적지 않다.

- 필즈상은 왜 40세 미만에만 주는가?

과학자들의 ‘peak age’는 37~47세다. 이 나이대에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해서다. 그런데 수학의 경우는 ‘피크 에이지’가 37세까지라고 한다. 일반 과학자들보다 10년은 더 빠르다. 왜 그럴까. 그만큼 수학이 어려운 학문이어서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다.

퍼듀 대학시절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다. 나보다 나이가 2살쯤 더 많은 분이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대학 측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같으면 ‘나이차별’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지만 60년대만 해도 수학계에선 ‘나이제한’이 불문룰처럼 돼 있었던 것 같다.

- 필즈상은 몇명이나 주나?

노벨상은 매년 시상하지만 필즈상은 4년마다 한 번씩 2~4명의 수학자들이 받

지만 미국은 대학 내에 논문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프랑스 박사가 질적으로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필즈상 수상자들은 상당수가 외국에서 기본교육을 마치고 유학과 학위를 받고 미국시민이 된 경우다. 허준이 교수도 이에 속한다.

미국이 수학강국이 된 것은 공교육이 한국보다 잘 돼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어서 세계각국에서 재능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They end up in US’란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어느 분야에서건 미국에 오면 기회가 많아 더 유명해지고 더 성취하기 좋은 구조다.

- 수학의 매력은 무엇인가.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허준이 동문이 시인이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하는데 훗날 그때의 방향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화가나 음악가들이 그 분야의 아름다

웠는데 그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준 것이 음악이었다.

실례로 피타고라스는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했는데 가장 좋은 음이 나올 때 하프 현의 길이와 현에 미치는 힘이 간단한 정수비례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테면 한 옥타브는 1:2의 비, 5도 음은 2:3의 비를 이룬다는 사실 등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일컬어 ‘수학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를 기하학을 적용해 작곡했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스위스의 유명 수학자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인 게리코 마졸라는 ‘Tops of Music’을 쓸 때 기하학과 삼각함수, 미분학을 차용했다.

-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는데 그동안 필즈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이유는?

한국교육이 잘못된 탓이 아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져 젊은이들이 많은 제약에서 벗어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이 노벨수상자나 필즈상 수상자를 교수로 초빙해 한국의 고급두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연구를 할 수 있기 전에는 한국에서 노벨상이나 필즈상 수상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은 그러나 지난 40~50년새 기적같이 발전한 나라다. 내가 1960년 퍼듀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낼 때는 서울대학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다행히 동문 선배(고 김종석 박사)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 그 선배 덕분에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세계대학평가에 따르면 서울대학의 세계랭킹은 29위, 퍼듀 대학은 그러나 127위로 한참 뒤쳐져 있다. 한국에서도 노벨상 또는 필즈메달 수상자가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올 것이라고 자신한다.

문경호 박사는

▲퍼듀(Purdue)대학 석·박사

▲ITT 밴더버그 공군기지

▲에어로스페이스

▲캘리포니아주립대(롱비치) 교수

노벨은 수학이 비실용적 학문 ‘편견’

피타고라스는 ‘수학과 음악의 아버지’

베토벤 ‘월광 소나타’도 기하학 ‘차용’

는다. 수상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에도 영광이다. 그런데 수상을 거부한 학자도 있다.

수학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러시아의 그레고리 페렐만은 2006년 필즈상 수상자로 결정됐는데 본인이 수상을 거부했다. 거부 사유가 매우 흥미있다. “I don’t want to be on display like an animal in a zoo.” 결기가 대단한 수학자였다.

- 미국은 왜 수학강국이 됐나?

사실은 미국과 프랑스가 필즈상 최다 배출국가들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역대 수상자 64명 중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3명씩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미국이 1~2명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프랑스에선 논문을 프랑스 수학협회가 심사해 통과해야 박사학위를 준다.

움을 발견하면 미친듯이 일하듯 수학자도 마찬가지다. 몇백년, 몇십년 미제로 남아온 문제를 풀기 위해 미친듯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가 되면 중독됐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오죽하면 허준이 동문의 부인(역시 서울대 출신의 수학박사)이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 결혼을 망서렸다고 하지 않는가.

- 음악과 수학은 공통점이 있나?

음악을 들으면 수학을 더 잘하며 악기를 하면 복잡한 수학문제를 더 잘 푼다고 한다. 작곡도 수학과 연결돼 있다.

음악과 수학의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낸 학자가 바로 옛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다.

그는 ‘만물은 수로 이뤄져 있다(All things are made up of numbers)’고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NU 이음장학금, 마음을 잇다



따뜻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이음장학금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 주세요

@SNU Photo Gallery

SNU 이음장학금은 선한인재장학금의 생활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소명과
사회적 책무**

서울대학교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을 시행



SNU 이음장학금
美♥ME♥SNU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의 기회 제공

- 단기 해외 방문 지원 (최대 4주/1인 500만원)
- 해외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한 학기/1인 1,500만원)



선한인재장학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 30만원 지원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 로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 이음장학금 간단 참여신청서 [EUM22-01]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평창힐링타운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둘러봤다. 왼쪽부터 송우엽 · 이경형 · 박태섭 · 최성재 · 이호갑 · 이승무 동문.

평창 시니어타운 어떻게 개발되나 최성재 동문 추진단장, 조감도 공개

서울대 평창 캠퍼스 일대에 시니어들을 위한 힐링타운을 건설하자는 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새 총동창회장단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평창에 서울대 캠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문은 많지 않다며 평창은 건강에 제일 좋다는 700고지에 위치해 있어 시니어 타운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강원도가 700억, 평창군이 300억을 각각 투자해 공동개발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역대 총장들이 발전을 못시켜 흐지부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동창회장단이 구성되면서 평창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총동창회는 최성재(문리대 66) 서울대 명예교수를 평창 힐링타운 추진단장으로 임명,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최 교수를 비롯해 이경형(문리대 66) 상임부회장, 이호갑(인문대 74) 전 삼성노블카운티 마케팅 본부장, 이승무(경제 72) 사무총장, 송우엽(사대 79) 사무차장 등 총동창회의 평창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박태섭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기획실장의 안내를 받아 모교 평창캠퍼스를 비롯 그 일대를 둘러봤다.

총동창회는 올해말 시니어타운, 노령층 전담병원, 기숙형 국제학교, 18홀 골프장 등으로 이뤄진 '평창힐링타운' 조감도 발표를 목표로 최근 담당자를 인선하고 해외대학 사례를 연구하는 등 사업

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 교수는 "모교 평창 캠퍼스의 바이오 회사들과 협력할 부분도 많은 것 같다"며 "평창힐링타운이 우리나라 스마트 건강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김종섭 회장이 이같은 구상을 밝히자 미주 동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미주동문들도 할인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민간업자의 반값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앞으로 미주 동창회와 긴밀히 소통을 하며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창은 ...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어 해발고도가 700m 이상인 곳이 전체면적의 약 60%를 차지한다. 지난 2018년 1월 동계올림픽이 열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평창 서울대 캠퍼스는 농생대가 주축이 돼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시설, 실험목장, 산학협력단지가 들어서있다.

대관령 한우, 평창 멜론, 봉평 메밀, 대관령 황태, 평창 감자 등 특산물이 유명하다.

서울대 총동창회장 후원 나눔/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11월 14~15일 ·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는 오는 11월 14~15일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4월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를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정, 1인당 1만 달러의 스킨십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문 또는 동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 잠재력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이들의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동창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동문들의 참여와 기부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동참의사를 밝히며 특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주 동창회의 상임고문도 겸하

고 있는 김 회장은 "본국과 미주의 동창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며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은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67년 오픈한 골프장은 PGA와 LPGA 등 프로대회도 유치한 바 있어 라스베가스 최고 명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랜드 캐년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패키지 여행도 가능합니다.

동문들의 친교도 겸해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1월 14~15일
- ▲신청마감: 2022년 11월 1일
- ▲숙박 및 관광일정: 추후 공지
- ▲장소:
The Las Vegas Country Club
www.lasvegasc.com
3000 Joe W Brown Dr.,
Las Vegas, NV
- ▲문의: 310-719-5422
서치원(대회 조직위원장 · 공대 69)

동창회비 납부하시면 이런 혜택들이 ...

미주 동창회는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문님의 진심어린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동창회 활성화 및 동창회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 ▲매월 동창회보 우송 ▲서울대 병원 종합건강검진 10% 할인
- ▲한국의 SNU 베리타스 물 이용(각종 유명 브랜드 할인가격으로 구매)
- ▲동창회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 초청 등.

이외에도 본국의 총동창회와 연계해 동문님이 더 많은 배니핏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동창회보에 별첨한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비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창회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는 국세청(IRS)에 비영리기관(501c3)으로 등록되어 있어 회비나 후원금 등은 모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음 장학생’의 남가주 방문기 “선배님들의 정을 귀한 선물로 갖고 갑니다” 아메리칸 드림 일군 동문들에 존경심 절로

서울대 이음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남가주를 방문한 13명 서울대 장학생들에 대한 남가주 동문들의 환영파티가 이어지며 미국 선배와 한국 후배들의 따뜻한 만남이 계속됐다.

환영파티는 7월 4일 한귀희 동문 S-Village, 7월 6일에는 서치원 동문의 레이크 애로헤드 별장에서 열렸다.

7월 4일 S Village 독립기념일 갈비파티

7월초까지 LA에 도착한 서울대학교 1학년-3학년 재학생인 손평아(경영학), 이소희(동양화), 임유빈(서양화), 김예린(지구과학교육), 박용주(교육), 민여은(정치외교학), 채예원(정치외교학), 안수혁(지리학), 박진학(수의예), 이동건(의예), 김도연(노어노문학), 김서경(서어서문학), 윤지인(인문계열), 한지우(중어중문학) 등 13명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한귀희 동문(미대 68, 전 남가주총동창회장) 소유 아파트 단지내 S-Village에서 남가주총동창회가 마련한 BBQ 파티에 참석했다.

박제환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김경무 차기회장, 최용준 전 회장, 강호석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손영아 전 총무 등이 참석한 갈비파티에서 학생들은 남가주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이 분에 넘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귀희 동문은 본인 소유 아파트단지 내의 S-Village 에서 아파트 2베드룸, 1베드룸 등 6개 유닛을 제공해 13명 학생들이 남가주에 머무는 동안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게 했고, 강호석(경영대) 동문이 4명의 학생들, 독고량(공대 대학원), 서정화(음대) 동문 부부, 김인중(농대) 동문 등이 각각 2명의 학생들에게 동문가정 방문, 숙박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화를 나누며 “동문가정 방문과 선배들의 헌신적인 배려를

통해 걸음으로만 보는 미국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과 이민가정, 집모양을 보게 됐다”며 특히 아메리



BBQ는 처음... 안수혁, 이동건 학생이 한귀희 동문 소유의 아파트 정원에서 갈비를 굽고 있다.

파티를 즐겼다.

갈비파티를 마친 학생들은 단체로 웨스트레이크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장



서치원 동문의 애로헤드 별장에서의 1박 2일. 숲속에서의 아침식사는 색다른 체험이었다.



미국 속의 유럽? 채예원, 민여은 학생이 별장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의 본인 별장으로 모두 초대해 미국에서의 1박 2일의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었다.

학생들은 LA 동북쪽 80 마일 지점의 유명 리조트 타운, 레이크 애로헤드의 별장을 방문해 우거진 레드우드와 세콰이어 나무 속에서의 하루를 즐겼다.

서치원동문은 한국에서의 엔지니어 삶, 그리고 미국 이민생활에서 겪은 갖가지 애환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며 후배들에게 인생에서 겪을 고생을 두려워 말라고 격려했다.

서치원 동문은 특히 음식을 모두 준비한 부인 수잔 여사와의 다정한 사랑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웃음과 함께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7월 6일 레이크 애로헤드 갈비파티

이음 장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캠퍼스 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동아리모임이나 친구교제도 없는 황량한 대학시절이었다”며 “미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동문, 선후배의 모습이 이런것이구나”라고 절실히 깨달았다며 진지한 감동을 말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졸업을 하면 내가 후배들에게 이런 자리를 다시 베풀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소감도 밝혔다.

별장에서 포켓볼 당구를 치며 밤늦도록 미국생활을 즐긴 이음장학생들은 다음날 서치원 동문부부와 함께 별장타운의 레드우드 숲길과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보람있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미국방문 생활”이라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학생들은 레이크 인근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남편이 태권도 ‘검은 띠’라는 금발의 가게 여주인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가지기도 했다.

취재=김인중(농생대 74)

한귀희 동문의 독립기념일 BBQ 파티 처음 보는 미국에 새삼 경이로움 느껴 서치원 동문 별장에서의 1박2일 못잊어

칸 드림을 일군 동문들의 삶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갈비파티에서 S-Village 에 숙박하는 학생들이 가든파티 테이블을 스스로 세팅하며 준비했고 일부 학생들은 갈비를 구워보며 미국에서의 첫 BBQ

를 방문해 “구름 위에서 보는 것 같은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보았다”며 즐거워 했다.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동문은 남가주 방문 이음장학생들을 레이크 애로헤드(Lake Arrowhead)

“60년 전 나의 처지와 오버랩돼” 이음 장학금 쾌척 노명호 회장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은 ‘이음’의 뜻을 알고는 가슴 한켠이 찡찡했다고 털어놨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다는 설명에 주저하지 않고 1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내놨다. 이 돈이 더 많은 ‘이음’으로 이어져 젊은 후배 동문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다.

이음 장학금은 모교 재학생들의 국제역량강화와 해외 동문들과의 교류 확대

가 취지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돼 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직 미국을 와보지 못한 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프로그램이다.

노 회장 역시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힘들게 학업을 마쳤다. 대학 입학식날부터 졸업식날까지 내리 4



오세정 총장과 노명호(오른쪽) 미주 동창회장.

년을 가정교사를 해가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맡았다. 4남매의 맏이인 노 회장은 ‘청년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이번 LA를 방문한 이음 학생들을 만나보고 나니 문득 60년 전의 자신과 오

버랩돼 동병상련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음 학생들의 생각이 바르고 긍정적이어서 조금만 도와주면 모두 글로벌 인재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음 장학생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되갚는(pay back) 대신 훗날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 ‘페이잇 포워드(pay it forward)’의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서울대 커뮤니티를 하나로 엮어주는 구심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음 음악회에 800여 관객 몰려 '포르테 디 콰트로' 출연, 팬들 환호 박민정 · 최혜성 · 윤희진 동문 등의 연주에도 갈채



‘포르테 디 콰트로’의 열창. 이날 김현수, 손태진 두 서울대 동문이 출연해 ‘넬라 판타지아’ 등 크로스오버의 진수를 들려줬다. 포르테 디 콰트로는 지난 2017년 jtbc의 팬텀싱어 프로그램에서 우승해 스타덤에 올랐다.



공연이 끝난 뒤 오세정 총장 등 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준 발전기금 상임이사, 김인중, 김현수, 손영아, 이만택 미주발전기금 이사장, 오세정 총장, 최용준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손태진.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환)와 본국의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주최하고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가 후원하는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가 26일 800여 청중의 환호 가운데 성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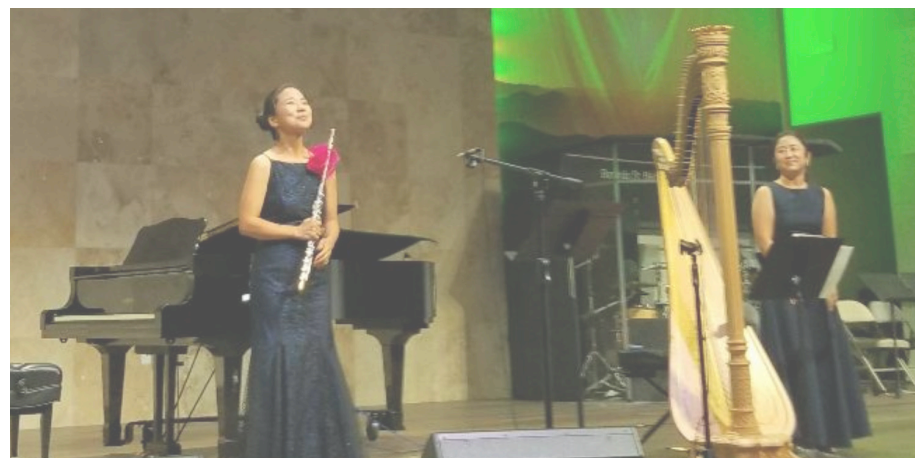
미주 평의회 일정을 마친 다음날 개최된 음악회에는 일부 평의원들도 참석했다.

음악회에는 특별히 본국에서 초청된 ‘포르테 디 콰트로’의 듀엣 김현수(성악 05), 손태진(성악 08)의 크로스오버 성악곡에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 ‘넬라 판타지아’,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아다지오’ 등 6곡에 이어서 앵콜곡 ‘향수’에 이르러서는 관객들의 감동 속에 오랜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1부에는 플룻 최혜성, 하프 윤희진의 합주 그리고 바이올린 박민정, 유키모리, 첼로 김원선, 비올라 조나단 위, 피아노 홍국희의 현란한 합주로 관객들의 갈

채를 받았다.

이음음악회는 서울대 재학생을 선발해 미국 방문을 통한 전문과 경험을 늘려 국제적 인재를 키운다는 장학프로그램으로 여건상 미국방문이 어려웠던 학



1부순서에 출연한 플루티스트 최혜성과 하피스트 윤희진 동문.

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대는 이음음악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동문들은 물론 남가주 동포들도 함께 연결되고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로 동문, 비동문 등 일반에게도 무료 초대권으로 행사를 오픈했다.

박제환 남가주 회장은 인사글을 통해 서울대 동문과 남가주 동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래면서 이같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적었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와 음악회 참석을 위해 LA를 방문한 오세정 총장은 “멀리서도 서울대학교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문과 지역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만에 개최되

는 음악회를 통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선율로 넉넉히 채워지길 바라며 이러한 응원의 소리에 힘입어 서울대도 사회의 책임감있는 주체로 아름다운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이음장학생은 “해외 방문을 하지 못한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이번 미국 방문은 힘든 학업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자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게 해주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관중은 동문과 비동문이 거의 반반의 비율로 참석해 일반에게 오픈된 동문음악회의 취지가 반영됐다.

관중석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려온 포르테 디 듀엣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성원하기도 했다.

이날 음악회는 남가주 동창회의 최용준 전 회장과 손영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고 새누리교회의 미디어 팀이 기술을 맡았다.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되는 서울대 음악회는 올해로 두번째를 맞았다.

한편 서울대 발전기금은 학교를 후원해 주는 동문과 지역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 학생들의 해외방문을 지원하는 ‘SNU 이음장학금’ 모금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놨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김광수 박사의 과학과 종교 에세이 만능줄기세포 만들어 파킨슨병 환자에 이식 ‘죽어가는 생명 치료 연구 우선’ 기도에 응답

대학에 있다보니 일 년에 한 두번 한 국에 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크를 하는데 종종 “삶은 달걀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라고 묻곤 한다.

그러면 곧바로 어디에선가 “boiled egg”라는 대답이 나오는데 나는 웃으면서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죠”라고 한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 “여러분, ‘삶은 달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life is egg’가 되지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웃음이 터진다.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관성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연구를 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풀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문득 인생은 정말 달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달걀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상징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삶은 달걀’

나 역시 중고등학교 때 어려가지 인생의 문제들에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성경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이습우화처럼 황당하게 느껴졌다.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에 육사를 나오신 부친께서 상황에 의해 억지로 군에서 나오신 후 모든 사업에 실패해 우리 집은 극빈자 수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도 없었고 우울했고, 기가 죽어있는 학생이었다.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중 요한복음을 읽게 됐다.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라는 말씀을 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형당한 것을 알게 됐다.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신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의문이 처음 내 마음에 부딪혔다.

그리고 많은 토론과 묵상을 통해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 사건은 나의 삶에서 분수령이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할까 하는 것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기초과학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루는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하얀 목화밭이 가득한 조용하고 넓은 곳에서 살았는데 연구생활을 제외하면 정말 무료한 곳이었다.

대도시에서만 살던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고(실은 아이들 교육문제로) 압력을 세계 주는 바람에 여러 학교에 지원서를 냈다. 정말 뜻밖에도 하버드 의대에서 오

용해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들어 치료하는 것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우리를 후원했던 그 환자가 첫 번째 환자로 자신을 써달라고 자처하고 나섰다. 그 환자는 내 손을 잡고 “Kwang-Soo, I am dying everyday”라고 호소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면역체계 부작용 없어

우리는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다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로 만든 후 이를 이식해 환자의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없이 작용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새로 생성한 신경세포를 환자의 뇌반구 양쪽에 6개월 차를 두고 이식해 계속 도파민을 생성케 함으로써 파킨슨병 증세를 완화시켰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2년 정도의 팔로업을 통해 많은 호전을 보여주었고, 세포치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2020년에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는 부작용없이 양호한 상태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니 20여년 전 보스턴으로 오면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과학자에게 은퇴는 없다’

맞춤형 세포 치료를 통해 파킨슨 환자의 증상이 개선된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한 2020년은 공교롭게도 내가 65세가 되는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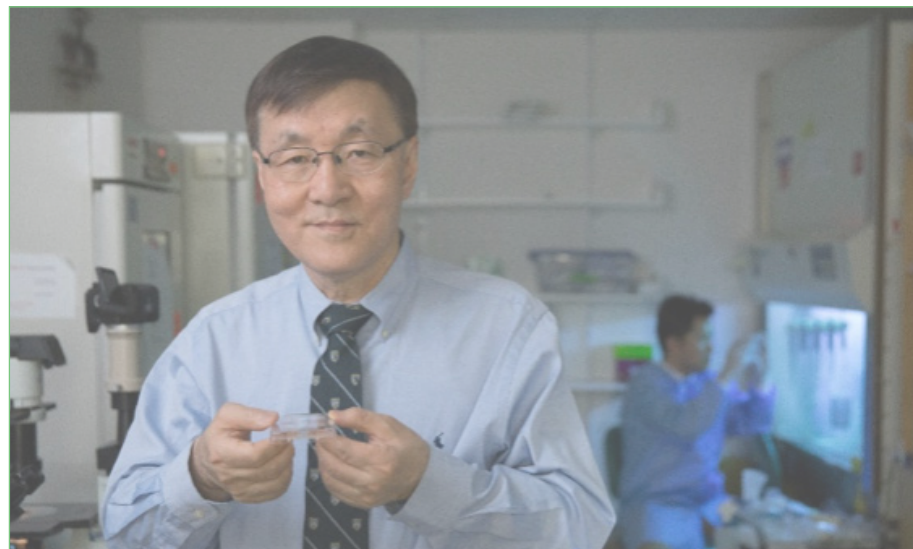
분에 넘치는 연구결과도 얻었으니 은퇴하고 편히 좀 지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아내는 나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내게 대뜸 “과학자에게 은퇴가 어디있어요?”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닌가.

실은 우리의 첫 논문이 발표되고 지난 2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애절한 사연을 편지와 이메일로 받았고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맞춤형 세포치료가 파킨슨 환자에게 상용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국 은퇴를 접었고 “하나님, 저의 부족한 연구가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또다시 드렸던 것이다.

김광수 박사는

- ▲ MIT 포스트닥
- ▲ 코넬 의대 조교수
- ▲ 테네시 주립대 의대 부교수
- ▲ 하버드 의대 교수 및 Molecular Neurobiology Lab Director



맞춤형 세포치료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성공한 김광수(자연대 73) 교수. 환자는 부작용 없이 2년째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었다.

어느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심야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공부를 계속하고 과학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렸다.

70년대 초 미생물학과라는 신설학과가 생겨 막대한 호기심을 갖고 진학했다. 졸업 후 미국유학을 가기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나서 1980년도 초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곳이 보스턴이었다.

‘사망의 골짜기’ MIT 시절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촌놈이 가장 앞서가는 생명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MIT에 와서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 또는 거친 광야라고나 할까.

그 험난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넘겨 포스트닥 과정을 마치고는 코넬 의대 조교수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독립적인 학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버드대의 잡오퍼

근 2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한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후 멤피스에 소재한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됐다. 야생들소와

피를 받고 보스턴으로 되돌아온 것이 벌써 24년 째가 됐다.

보스턴으로 돌아오면서 첵바퀴 돌듯이 연구비를 신청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 생활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에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라는 귀절이 있다. 또한 예수님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연구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여 우리의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 신경세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해서 생기는 파킨슨 연구에 집중하게 됐다.

기적같은 만남

특히 보스턴으로 온 후 우리는 줄기세포를 도파민 신경으로 분화해 세포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국립보건원(NIH)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연구실 연구비가 반토막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마침 이때 의사이자 사업가이며 파킨슨 환자인 한 미국인과 기적적으로 만나게 돼 그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우리는 파킨슨 환자의 피부세포를 사

장지혜 박사의 ‘음악을 통한 한국문화의 이해’ 이지수의 ‘아리랑 판타지’는 진취적, 서사적인 색채 강해 드라마 ‘도깨비’ 사운드트랙은 한국적 발라드와 클래식 결합

장지혜(음대 피아노·94) 동문은 솔로, 실내악 및 현대음악 연주와 강의 등 한국과 미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음악박사다. 특히 2018년부터는 미국에 현대 한국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장 동문은 올해 봄학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Music by

Korean Composers’ 강좌를 신설해 주목을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음악비전공 학생들까지 대상을 넓혀 한국음악과 문화를 알리는데 진력하고 있다. 다음은 장 박사가 지난 6월 24일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서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편집자.

지난 봄학기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처음으로 ‘Music by Korean Composers’ 강좌를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로 뜨거워 나 자신 놀랐다.

아마 한국의 전체적인 위상이 높아졌고 BTS 등 팝뮤직과 ‘오징어 게임’ 등 영화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 클래식 연주자들의 각종 주요 콩쿨 대회 우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강의를 통해 소개했던 한국 작곡가들의 음악 중에 한국 문화와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작품 몇 가지를 소개 하고자 한다.

한국 문화에는 선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수묵화를 예로 들어 보자. 붓으로 가늘고, 길게, 점도 찍는 등 하나의 선을 갖고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음악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음악(국악)에선 선의 흐름과 변화가 확연히 느껴진다. 가야금의 ‘농현’은 한국음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농현’은 ‘현을 갖고 놀다’는 뜻이다. 서양음악과는 대조적인, 차별화되는 요소다.

‘농현’은 왼손으로 음을 끌어 올리거나 내리는 한국 전통음악의 독특한 주법으로 서양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음 하나를 짚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빨라지기도 하는 등 음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한국 작곡가들 중에는 이같은 농현의 개념이나 선과 시간의 흐름 등 한국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한국적인 정서로 보통 ‘한’을 많이 이야기하고, 한국음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리랑이다. ‘한’을 노래했다고 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꼽힌다. 화성 없이 멜로디 위주로 돼 있으며 특히 ‘길고 짧고(long short)’의 장단에 주로 의존한다. 아리랑을 비롯한 다른 민요들은 수평적, 횡적인 미학을 추구하며, 선율이 많이 반복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요즘 세대의 한국 작곡가들은 아리랑을 더 이상 ‘한’을 주제로 한 음악으로

만 간주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지수다. 역시 서울대 출신이자 현재 서울대 교수인 그는 영화음악작곡가로 지명도가 아주 높은 분이다.

그가 아리랑을 차용해 쓴 ‘아리랑 판타지’는 지난 2015년 런던 심포니가 연주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이 아니다.

분위기도 다르다. 아리랑에 오케스트레이션이 입혀지면서 화음도 영화나 재즈 음악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아벤저

는 K-드라마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 번 보기를 추천한다. 원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촌스럽지만 드라마의 주인공은 돈도 많고, 미남인 세련된 캐릭터다. 드라마에 나오는 OST는 가수 에일리가 불러 인기를 끌었다.

K-드라마 주제곡은 피아노로 반주한 발라드 풍이 대세이고, 에일리가 부른 주제곡에도 K드라마 특유의 단조적 감성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도깨비’에는 클래식에 바탕을 둔 음악도 나온다.

나, 한이 느껴진다거나 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진 작곡가는 하나의 음에서 시작하여 그 주변을 맴도는 여러 가지 음을 쓰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곡을 전개하고 첼리스트는 계속 ‘아니리’라는 판소리의 한 부분처럼 음악적 이야기를 풀어간다.

필자는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를 좇는 것’이야말로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믿는다. 유럽 문화의 중심에서 최고의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은숙의 음악에서 자주 관찰되는 기교적인 극한의 어려움이나 매우 촌촌한 작곡기법이 그 궁극적 가치 추구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김택수를 빼놓을 수 없다. 화학과를 나와 음대에 편입,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서울대 동창회보 4월호 참조).

김택수는 진은숙과는 달리 한국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다. ‘Co.Ko - un poco Loco’가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영어로 옮기면 ‘Contemporary Korea - a Little Bit Crazy’가 되겠다.

뽀뽀뽀에 사용되었던 ‘짬짬 짬짬’, 90년대의 발라드, 농현의 개념, 한국형 댄스음악 등 여러 가지 21세기 한국 문화의 다이내믹하고 크레이지한 모습이 다채롭게 담겨 있으며, 한국의 정서 중 ‘한’이 아니라 ‘흥’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다.

끝으로 한국에는 유전적으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

‘나도 최고가 되어야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다양한 연주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다.

장지혜 박사는

- ▲인디애나 주립대 석·박사
- ▲플로리다 주립대 강의
- ▲UCLA, UC 버클리, 서울대, 카이스트 등 초청 강연 및 연주
- ▲Ravello, Albany, 소니 코리아 등 음반 발매



대학에서 한국의 현대음악과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장지혜 동문. 오른쪽 사진은 이지수의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고 있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진은숙의 첼로 협주곡 1악장 ‘아니리’ 21세기의 한국 ‘코코-운포코 로코’ 한국인은 음악유전인자 갖고 태어나

스와 같은 마블 영화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또한 밀양 아리랑을 차용한 ‘아리랑 랩소디’에서는 피아노의 기교적인 주법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취향에 맞게 진취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아리랑을 재탄생시켰다. 아리랑의 ‘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다른 한국적 감성인 ‘흥’으로 끌어 올린 편곡이라고 할까.

이지수의 또다른 레전드는 ‘올드보이’ 주제곡이다. 박찬욱 감독의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영화의 성공에는 이지수 음악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애수 어린 단조풍의 멜로디는 영화를 더욱 실감나게 해줬다.

지난 2016년 메가히트를 친 ‘도깨비’

한 예로 바흐의 평균율 다단조를 바탕으로 한 경쾌하고 톡톡 튀는 음악이 주인공 은택을 표현하는 음악으로 사용되었다. K-발라드와 클래식 음악의 세련된 어우러짐은 현대적이고 세계화된 현재의 한국 문화를 반영한다.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진은숙은 서울대 출신의 현대음악계 거장이다.(동생은 한국의 유명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진은숙의 음악은 한국적인 소재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첼로 협주곡 제 1악장에는 ‘아니리’라는 부제가 붙어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아니리’는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말한다. 첼로 협주곡에 ‘아니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해서 판소리와 직접적 연관이있다고

종신이사 회비 회장임기 모금액 중 3분의 1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 비영리 단체 취지에 따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논의 동창회비 연 100달러 현실화, 18대 회장 인선위 7명 선임

미주 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5일 미 전국에서 100여 명의 평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호석(경영대 81)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평의원 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거쳐 중요 안건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노명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학생 선발과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 참여, 재미한인과학기술인협회 기부 등 국세청(IRS)의 501c3 조항(비영리단체 규정)에 걸맞는 활동을 펼쳤으나 기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년의 각 부문별 사업보고 및 이날 결정된 주요 사항을 간추린 것이다.

브레인 네트워크 (한홍택 박사, 공대 60)

코로나 사태로 줌을 통해 포럼을 진행했다. 예상외로 포럼이 활성화돼 코로나가 반드시 나쁜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각 지부 동창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 포럼을 개최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창업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도 마련했다. 지난 4월부터 시작했는데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워싱턴 DC의 김광국 동문이 간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성공사례도 보고 됐다. 서울공대 교수가 창업한 텔로팜(Telofarm)이 캘리포니아에 진출하는데 동창회가 큰 역할을 했다.

동문의 딸이 소유한 나파밸리 농장이 텔로팜과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은퇴와 관련한 네트워크도 개설할 계획이다.

기금운영관리 (손재욱 · 신응남)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00만 달러 모금 캠페인(Century Foundation)과 관련한 규정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종신이사 회비는 모두 '센추리 기금'으로 적립되는데 이 돈은 집행부가 쓸 수 없도록 규정에 묶여 있다.

동창회비를 납부하는 동문들은 750명에 불과하고 '센추리 기금'은 사용이 불가능해 동창회 운영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동창회 운영 예산은 예전 20만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물가가 크게 올라 지금은 40만 달러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명호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평의원들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실에 바탕을 둔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

이다. 앞으로 젊은 세대(관악연대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명호 회장은 이와 함께 동창회가 IRS의 501c3 비영리 단체 설립기준에 비취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창회가 사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지난 6월 25일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평의원들은 이날 안건별로 열띤 토의를 펼친 끝에 동창회비 인상 등 합의를 도출해내는 성과를 올렸다.

회공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해야 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칙 위원회 (김병연 위원장, 공대 68)

최근 8명의 위원들이 줌 모임을 가졌다. 위원들은 300만 달러 기금모금 캠페인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데 동의했다. 종신이사 회비 등 임기 중 모은 기금은 현 회장이 일정 부분 동창회 운영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기금관리위원회도 간소화해 현 회장과 차기회장, 직전회장 등 3인을 당연직으로 하되 현 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인 2명을 포함, 모두 5명으로 구성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현재 연 75달러로 묶여 있는 동창회비도 현실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학위원회(강호석 사무총장)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노명호 회장, 심사위원장은 한홍택 박사가 맡고 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과 한홍택 박사의 기부금 일부에 미주 동창회가 절반을 출연, 1인당 1만 달러씩 모두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은 동문 및 동문 자녀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미주한인 사회에 오픈,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현재 내년도 장학사업을 위해 5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나머지는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부자의 이름을 딴 장학금도 수여할 수 있으니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

IT 보고(심재호, 공대 75)

웹사이트와 회원 주소관리를 맡고 있

300만 달러 센추리 기금 관련 규정 개정

일부 평의원들은 목표액 300만 달러 모금이 달성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동창회 운영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노명호 회장 등은 그러나 "300만 달러를 채우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300만 달러라는 숫자를 빼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동문들의 고령화로 인해 종신이사 회원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종전까지 종신이사 회비는 특별계정에 적립돼 회장단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김상찬(문리대 65) · 박평일(농생대 69) 평의원 등은 "명분이 있고 사업이 좋으면 돈을 써야하는데 현행 규정은 이같은 동창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명호 회장은 "돈은 현명하게 쓰면 더 들어오기 마련이다"라며 "동창회장 임기중 모금한 종신이사 회비의 3분의 1을 동창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주경(상대 68) 평의원은 300만 달러 '센추리 기금' 캠페인에서 300만 달러 숫자를 뺀 것과 모금액의 3분의 1을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각각 표결에 부칠 것을 거듭 요구,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얻어냈다.

동창회비 현실화

연 동창회비 75 달러는 13년 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평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인상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새 회비는 100 달러, 150 달러, 300 달러 안 가운데 150 달러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노명호 회장은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100 달러를 제의, 평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김영태 감사 인준

김영태(미대 73, CPA) 동문이 감사 인준을 받았다. 김 동문은 이상강(의대 70) 차기 회장이 지명했는데 감사는 평의원회의 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차기 회장(18대) 인선위원

18대 회장 인선위원으로 현 회장, 차기 회장, 직전 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 외에 황치용(시카고), 박상근(워싱턴 D.C.), 최경선(북가주), 정정우(뉴잉글랜드) 등 4명이 선임돼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전임회장인 신응남 회장이 위원장이 됐다.

18대 회장은 12월말까지 후보자를 확정, 내년 32차 평의원회의에서 최종 선출된다.

평의원 의결

1차년도 사업보고에 이어 열린 평의원 회의에선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미시간 지부 인준

평의원 회의는 미시간 동창회를 27번째 지부로 만장일치 승인하는 동시에 이광진(공대 81) 회장 대행 등 3명에게 즉각 평의원 자격을 부여했다.



왼쪽부터 한영신(생과대 86) · 이광진(공대 81) · 조호정(음대 81) 동문.

미시간 이광진(공대 81) 회장

“우리는 80~90년대 학번이 주축, 젊어요”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지부는 미시간 동창회다. 27번째 지부로 인준을 받는 즉시 평의원 자격을 부여받아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된 것.

미시간 동창회 회장대행 자격으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이광진(공대 81) 동문은 이번 평의원 회의에 조호정(음대 81), 한영신(생과대 86) 동문과 함께 참석했다.

미시간 지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동문은 모두 161명. 그러나 실제로는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 회칙에 따르면 지부 인준을 받으려면 회원이 최소 30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시간은 진

즉 지부 자격을 받았어야 했다.

미시간은 지난해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정무형(문리대 70)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정 동문이 갑작스레 한국으로 역이주를 하게 돼 이광진 동문이 회장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다른 지부 동창회에 비해 미시간은 젊어요. 80년대 학번과 90년대 학번 동문이 반반이예요.”

이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을 회원으로 유치해 미주 동창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광진 동문은 7월 23일 열린 미시간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 인준을 받았다.

초대 회장 박윤수 박사

“동창회 성장에 보람 느껴요”

“오래 살다보니 반가운 동문들을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기쁩니다.”

박윤수 박사는 올해 93세. 평의원 회의 참석자 가운데 최고령이다. 문리대 물리학과 48학번이지만 입학은 경성제대 예과여서 실제로는 46학번이다.

박윤수 박사는 미주 동창회의 산 역사다.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동창회를 만든 것. “처음엔 6개 지부에 불과했



박윤수 회장 부부가 박평일(가운데) 동문과 평의원 회의에서 반가운 해후를 했다.

어요. 지금은 미시간을 포함해 27개 지부로 확대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셈이지요”

박 회장은 여전히 건강하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데 전혀...”

동창회가 매년 성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박 회장은 “내년에 다시 보자”며 평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

SNU 몰 이용, 건강검진할인 등 공약 신년 음악회 경비는 총동창회 부담

다음은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평의원 회의에 참석, 강연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 회장은 미주 동창회를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며 미주 동문들도 본국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주 동창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국의 총동창회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지난 신년 모임에서 동문인 김부겸 당시 총리의 축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서울대 동문들은 사회에 빛이 있다. 서울대를 나왔다든 것 자체가 명예훈장 처럼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서울대 동문들은 이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미주 동창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공헌을 해야 한다. 더이상 우리(서울대)끼리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동창회도 단과대학, 과별 소규모 모임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전체 동문이 모일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동문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회를 열었다. 금나새(음대 66) 동문이 지휘봉을 잡았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공연이 끝난 뒤 금 동문에게 제의를 했다. “우리 미국가서 동문들을 위해 공연을 한 번 해보자.” 금 동문이 흔쾌히 승락해 내년 1월 LA에서 신년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모든 비용은 총동창회가 부담한다.

공연은 한인사회에 오픈해 범 커뮤니티

행사도 치렀으면 한다. 은행이나 기업 등도 참여해 2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수익금은 미주 동창회가 기금으로 사용,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음악회는 LA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이 좋아야 기부금도 들어오고 동문들의 참여도 높아진다. 동창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지갑을 열도록 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총동창회는 곧 ‘SNU 베리타스 몰’을 오픈한다. 서울대 출신만이

이용할 수 있는 ‘폐쇄몰’이다. 미주 동문들도 동창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는 베리타스 몰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생각이다. 좋은 물건을 할인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외에도 회비를 납부한 미주 동문들에 한해 서울대병원 종합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 정가가 2,500 달러 가량인데 10% 디스카운트 할인해 드리겠다.

총동창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강원도 평창의 시니어타운 건설이다. 평창은 건강에 제일 좋다는 700고지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 봄타운으로 변모될 것 같다. 당연히 미주동문들에게도 입주 기회를 드리겠다.

미주 동문들이 존경받는 서울대인이 되도록 총동창회도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미주 동문들도 서울의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오른쪽부터 김종섭 총동창회장, 서치원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강호석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 포상

다음은 제 31차 평의원 회의 포상자 명단이다.

오세정 총장패

▲ 신응남(15대 미주 동창회장) ▲

박종수(수의대 58, 남가주 총동창회) ▲ 노동완(공대 84, 재미과학기술인협회 뉴잉글랜드 지부장) ▲ 에드워드 강(사대 60, 전 뉴욕 동창회장)

김종섭 총동창회장패

▲강정수(문리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윤성희(사대 58, 북가주 동창회) ▲김윤하(공대 66, 전 시카고 동창회장) ▲이소정(음대 84, 시카고 동창회) ▲김유경(음대 72, 전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박상근(법대 75, 워싱턴 D.C. 동창회장) ▲차재호(농생대84, 미네소타 동창회장) ▲최용준(수의대 81, 전 남가주총동창회

장) ▲윤희경(문리대 62,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성숙(생과대74,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노명호 미주 동창회장패

▲김용진(수의대 92, 전 남가주총동창회 총무) ▲손영아(음대85, 전 남가주 총동창회 부총무) ▲최승희(사회대 81, 북가주 동창회 총무)



오세정 총장 만찬 '포르테 디 콰트로'의 김현수, 손태진 두 동문이 오세정 총장 만찬에서 열창하고 있다. 평의원 회의는 LA 인근의 퍼시픽 팜스 리조트 호텔에서 3일 일정으로 열렸다.

“1년 만에 또 뵙네요”

지난 6월 24일 3일 일정으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전국에서 16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모여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첫 날은 장지혜·강기동·염홍열 등 세 동문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주 동창회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처음 기획한 장학생 시상식, 만찬으로 이어졌다. 둘째 날은 평의원 회의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돼 주요 안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총장 만찬에는 거의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평의원 회의는 친목 골프, 그리고 이음 음악회로 막을 내렸다. 주요 행사를 화보로 여었다.

- 편집자.

“수고하셨습니다”
접수 등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미선, 홍선례, 이주희, 이호진, 유혜연, 김희경, 이윤중



엄마 친구와~
첫날 공연한 피아니스트 박현정(음대 84, 왼쪽)과 첼리스트 최유나(음대 13). 최 동문의 어머니는 박 동문의 음대 동기로 밝혀져 화제가 됐다.



내조의 여왕 곳을 일을 도맡아 한 임원 배우자들. 왼쪽부터 김경숙(생과대 70, Mrs. 이상강), 김하란(Mrs. 김상찬), 노현숙(Mrs. 노명호), 서수잔(Mrs. 서치원), 남정희(Mrs. 남종우), 성마리아(Mrs. 성주경), 김문희(Mrs. 김병연).



벤자민·비비안 홍 부부



친목골프 피날레는 골프. 20여 동문이 무더위에 불구, 골프를 즐겼다.



1박2일 관광 평의원 회의가 끝난 뒤 27명의 동문이 그랜드 캐년과 라스베이거스 관광을 즐겼다. 최진석(법대 64) 동문이 기획한 단체관광은 반응이 뜨거웠다.



최대 규모(?) 모두 10명의 평의원이 참석한 시카고 동창회. 김승주(아랫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회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LA 투어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특별 투어가 준비됐다. 게티 빌라를 찾은 배우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영신 박사의 좌충우돌 미국 생활 체험기 두 아이와 함께 '마운트 사이나이' 포스트닥 식품알러지 연구소 근무하며 '나의 재발견' 행운



한영신
생과대 86

2006년 7월 뉴욕 JFK공항에 두 아이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국가 지원을 받아 '포스트닥'을 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곳을 처음 밟는 순간이었다. 석사 때 동물실험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제 연구는 그만 하자 했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해보니 박사학위가 없으면 연구 심부름만 할 것 같아 석사 마치고 7년만에 박사를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박사를 하다 보니 두 아이 키우면서, 일하고, 논문 쓰고, 살림하면서 정말 힘들게 박사를 마쳤다. '이제 이렇게 힘든 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 지원으로 미국에 갈 일이 생기고 나니 아이들 영어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초등 5학년과 1학년 아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평소 새로운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잘 모르는 것을 쉽게 도전해 보는 편인데 미국에 와보고 '내가 무식해서 용감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에 미국 생활을 잘 알아보지 않았고, 그러니 준비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이는 둘이나 데리고 와서 일을 하려니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아이 둘을 데려다 놓고, 지하철을 두번 갈아타고 맨해튼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식품알러지 연구실로 매일 출근했다. 끝나자마자 서둘러 아이를 픽업하고 저녁을 해 먹이고 하는 생활을 1년 반을 했다.

체력이 좋지도 않고, 혈압이 낮아 아침이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아이들 등교시간을 지키지 못한 날도 많았고 가끔 교장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다.

아들 치고는 둘 다 얌전한 편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사고가 많아 응급실에만 3번을 갔다. 정말이지 미국 체험을 징하게 했다.

아이들 데리고 힘들긴 했지만 뉴욕에서의 1년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분되고, 성과가 많았으며, 나를 한단계 업그

레이드하게 한 시간이었다. 내가 가게된 연구실은 식품알러지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자인 Dr. Sampson이 이끄는 곳이라서 최첨단 기술과 연구 접근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새로운 연구를 배우게 된 것 보다 더 기쁜 것은 나의 재발견이었다. 나의 손이 정확하여 실험 결과의 재현성이 좋았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냈으며, 한번에 여러개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다른 연구원들보다 최소 두배의 결과를 얻었으며, 그러다 보니 기계처럼 일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렇다고 일만 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해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그 연구실이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유럽에서 많은 의사들이 몰려

왔는데, 다들 외국살이를 하다 보니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다.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포스트닥 시절 맨해튼 어느 가게 앞에서. 왼쪽부터 필자, 프랑스 친구 Martine, 베트남 친구 Ramon, 큰아들 지훈, 작은아들 지원, Martine 아들 Pacho.

실험실 두 곳서 연구, 유명 학자들과 교류 미국은 큰 기대없이 와서 기회를 잡았던 곳 LA 동창회 모임은 내게 또다른 기회의 장

그 중에서 나와 비슷하게 아들 둘을 데리고 온 프랑스 의사와는 절친이 되어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있던 나에게 미국 생활은 긴장과 흥분 그 자체였으며, 전세계 과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우물안의 개구리였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 이상의 경험이었다.

아이 맡길 곳이 없던 나는 학교가 쉬면 아이를 실험실에 데리고 갔으며, 아이들은 그곳에서 많은 과학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파티가 있으면 그들은 나의 사정을 이해해주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하도록 배려해주었다.

정말 짧은 기간동안 좀 더 많은 결과를 얻겠다고 실험실 2개를 왔다갔다하며

여러 개의 실험을 동시 진행했고, 전세계 연구자들과 교류를 많이 하였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어린 아이 둘을 돌보면서 여러번 응급실에 가다 보니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까 항상 불안감이 깔려 있었고, 남의 나라에서 사는 편치 않은 마음 때문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잡고 마지막 1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제 미국에서 살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며 미국은 나의 마음에서 저 멀리 사라졌다.

한국에 돌아와 나의 연구는 날개를 달았다. 내 연구비도 꾸준히 받았고, 환경

부에서 지정받은 아토피 피부염환경보건센터 사무국 국장을 맡아 국가 일을 하면서 수십억의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렇게 10년정도 일을 하던 중 한편으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고, 지원도 많이 받아서 이전의 미국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안함과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즐거운 일만 생기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코로나 라는 변수가 생겼다. 미국에 온지 2달여만에 미국, 아니 전세계가 집에 갇히고 말았다. 여전히 낯선 미국에서 적응할 기회도 못 갖고 너무도 답답한 미국 생활이었다.

그런데 나의 회사는 코로나로 기회를 얻었다. 나의 회사는 비대면으로 검사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어린이 건강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영양사 교육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대면이 일상화된 코로나 세상에 내 사업이 빛을 보게 되었다.

내가 직접하는 전문가 교육이 많은데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게다가 어쩌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돼 추천서를 위해 Dr. Sampson에게 연락하며 나의 사업 내용을 이야기하니 병원에서 사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미국에 오면서 사업은 거의 포기하였는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덕으로 사업이 살아나고, 미국 영주권도 받게 되고 ...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정말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다.

2022년 6월 어쩌다 미시건 서울대 동창회 기획이사 자격으로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내가 LA를 오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온 동창회 모임이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다. 동문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노력하신 회장단과 사모님, 많은 분을 소개해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선배님, 언제든지 기업을 회의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선배님, 행사를 위해 헌신하신 간호대 선배님, 밥 한번 사주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챙겨 주신 선배님 ...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고마운 선배님들이 계셔서 LA 동창회 모임은 따뜻하고 넉넉했다. 그리고 아직도 안부와 사진을 보내주시는 선배님들 만나서 너무 좋았다.

미국은 나에게 그랬다. 큰 기대도 계획도 없이 와서 기회를 잡았던 곳. 앞으로 나의 미국 생활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계획도 없고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지만 지금처럼만 되었으면 하는 욕심 많은 희망을 가져본다.

- 한영신 박사는**
 ▲서울대 석·박사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포스트닥
 ▲성균관대 의대 연구교수
 ▲(주)뉴트리아이 대표

이순신의 거북선, 백악관 앞에서 위용 드러내다 이내원 동문의 숙원 ...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가



이내원
사대 58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내원(사대 58) 동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난 7월 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이 동문의 평생 숙원인 거북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북선 주위엔 조선시대 수군 복장을 한 봉사자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연도에 운집한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환호가 쏟아졌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 동문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듯 했다.

“거북선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은 솔직히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 동문은 거듭 사의를 표했다.

미주 동창회도 거북선 제작 기금으로 1,000 달러를 보냈다.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거북선 지원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 퍼레이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한인사회가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는 무려 32년 만이다.

거북선 뒤에는 한국 전통무용단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등장해 관중들로부터 ‘원더풀!’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이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공중회전, 발차기, 격파 등 태권도의 진수를 보여줬다.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참가한 이순신의 거북선. 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6주에 걸쳐 완성된 거북선.



한국고전무용단의 퍼레이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묘기.

퍼레이드에 참가한 거북선 모형은 6주에 걸쳐 완성됐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이 동문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하루 8~12시간 작업을 힘든 줄 모르고 해냈다. 이 과정에서 이 동문은 과로 탓인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동문은 20여 년 전 ‘이순신 미주교육본부’를 발족해 충무공의 애국애족 정신과 리더십, 불굴의 용기를 한인사

회, 특히 주류사회와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비를 들여가며 동분서주해왔다.

이와함께 미니어처 거북선을 제작해 전국의 한국학교 등지에 보급했다.

“거북선은 세계 7대 전함에 꼽히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동문은 앞으로도 이순신 알리기에 진력하겠다고 하며 이마의 땀을 씻어냈다.

거북선 제작에 참여한 조영길 대목수는 “백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음에 또 기회가 된

다면 더 크고 웅장한 거북선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거북선은 대형 트럭 사이즈여서 보관이 쉽지않다. 일단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대형 교회 주차장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퍼레이드가 (거북선 홍보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주 전역에서 거북선 퍼레이드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동문의 이순신 추앙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다.

‘말수회’ 비영리단체 허가 회비 등 세금공제혜택

남가주 동문들의 골프 친목 모임인 말수회(회장 한효동, 공대 58)가 국세청(IRS)의 비영리단체 허가를 받았다.

말수회는 ‘마지막 수요일 만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말수회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비영리 법인을 임춘택(상대 68) 총무의 도움으로 설립, 앞으로 회비를 포함한 기부금은 전액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한 회장은 앞으로 비영리단체(501c3)



한효동
공대 58

취지에 맞게 사회공헌 및 나눔활동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10여 년 전 발족한 말수회는 현재 전체 회원이 5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매수회(매주 수요일 골프 모임)도 등록회원 20여 명으로 골프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SNU Golfers(말수회)
3700 Wilshire Blvd., #752
Los Angeles, CA 90010



Dr. 이덕송의 유머 코너

직업 별 싫은 사람

내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알 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무자식 상팔자’라는 사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법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놀이터

인턴 1: 왜 여자들은 가슴에 털이 없지?
인턴 2: 야- 놀이터에 잔디가 자라는 걸 본적 있니?

(의대 54)

임영호(공대 72) 동문 뉴잉글랜드 회장 야유회 겸 총회 ... 9명에 장학금 수여도



임영호
신임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6월 18일 뉴턴 어번데일 파크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1950년대 학년부터 2010년대 학번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과 가족 9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선 퇴임하는 김유경(음대 72)

19대 회장과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임영호(공대 72) 동문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김정선(문리대 66) 전 회장, 신진우(농생대 04) 관악회장, 장용복(공대 59) 동문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총회는 또 최진민(공대 72) 동문을 21대 차기 회장으로 인준한데 이어 홍지복(간호대 70) 동문의 이사 영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임영호 신임 회장은 “전임 김유경 회장님과 김정선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1년간 열심히 노력해 동창회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노동완(공대 84) 총무의 사회로 1분 장기자랑이 열렸다. 특히 모정자(문리대 50) 동문의 팔굽혀펴기 시범은 많은 동문들로부터 찬탄을 받았다.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올해 장학생으



지난 6월 18일 야유회 겸 정기총회에 9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임원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진우(장학위원), 강기화(CJ 제일제당), 정선주, 수잔 리, 박영철, 이의인, 김용구, 김병국, 김광수(장학위원장), 김유경(동창회장), 노동완(총무), 황다빈, 강하은, 김지옥(권오재 대리), 유서현, 문성현, 류예나, 박승은, 김채린, 김준수.

로 선발된 9명이 각 후원자들로부터 장학증서와 장학금(2,000~3,000 달러)을 전달받았다.

(고) 이재신(공대 57) 동문의 통 큰 기부로 궤도에 오른 장학사업은 특히 울

해 김광수(자연대 73) 장학위원장과 이현구(자연대 98) 동문, 신진우 동문 등의 활발한 모금운동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우수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취재=이경애(인문대 73)

시카고 야유회에 120여 명 참석 '성황' 이용락 동문 타주 이주, 석별의 정 나뉨



시카고 동창회의 야유회에 120여 동문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황찬주 동문 가족 밴드



최연소 남상욱(경영대 10) 동문 부부

지난 6월 11일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승주) 야유회에 120여 동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롤링 메도우의 한 공원에서 열린 이날 야유회에는 2010년 학번의 동문(남상욱·경영대)이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불고기와 김치를 곁들인 한식 도시락으로 점심을 한 동문들은 황찬주(인문대 84) 동문 가족 밴드의 반주로 노래자랑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황팀(토요일 밤)과 김팀(아빠의 청춘), 이팀(잘 있어요)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경연을 펼쳤다.

한편 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용락(공대 48) 전 회장이 곧 애리조나주로 이사하게 돼 동문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눴다.

동창회는 이 동문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기념 배너를 제작, 선물로 증정했다.

취재=이준수(공대 76)



서울대 국악과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뉴욕 동창회 임원진.

뉴욕국악축전에 30여 동문 참석 모교 국악과 재학생도 8명 출연

뉴욕국악축전이 지난 6월 30일 퀸 시어터에서 3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국악축전에는 노은하 모교 국악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재학생들이 출연, 음악회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가 담긴 음반을 동문들에게 증정,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 ▲이정빈(피리) ▲이지현(해금) ▲박수빈(대금, 생황) ▲노동혁(장구) ▲박소희(가야금) ▲김민주(모듬북) ▲윤예람(대금, 단소) ▲조수빈(정가).

취재=허유선(생과대 83)

시카고 동창회 장학생 모집

시카고 동창회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시카고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은 9월 5일.

장학금은 1인당 2,000달러로 모집인원은 10명 내외다. 신청서는 www.snu-aa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추천서 1매와 에세이, 2021~2022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snuaachicago@gmail.com

명복을 빕니다

- ▲이영민(의대 59, 시카고) 7월 2일 별세.
- ▲이수호(보건대 69, 뉴욕) 7월 4일 타계.

주선희(문리대 66) 동문 10 번째 개인전 UCLA 미술석사 ... 물리학도에서 화가로



주선희
문리대 66

주선희(문리대 66) 동문이 생애 10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는 8월 31일(수)부터 9월 24일(토)까지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TAG 갤러리에서다. 9개월만에 갖는 솔로 전시회로 모두 15점이 화랑에 걸린다.

이번 전시회의 타이틀은 'Love Embracing(포용하는 사랑)'이다. 전시회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 결과를 이번 개인전에 드러내 보이고 싶다.”

이어 주 동문은 포용과 사랑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힌다.

“팬데믹 전에는 내게 사랑이라는 말의 울타리가 좁았다. 가족, 친구, 지인들, 친척들로 대강 한계를 잡아서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귀양살이 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울타리를 없애 버렸다. 그리고 도처에서 사랑을 만났다. 내가 모르던 이웃을 만나게 되었고, 밖에서 지지귀는 새가 무슨 내용으로 지지귀는 지, 자연이 베푸는 사랑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도 사랑하고, 자연과도 사랑하고, 또 하느님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주고 싶다.”



엠마오로 가는 길(9" x 8")

앞서 주 동문의 변을 들어봤다.

“잠깐 주춤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을 만들어, 기세가 확산돼 가고 있다. 잠시 오랜만에 여행계획을 세우고 들떠 있던 마음도 긴장이 된다. 나는 내 자신이 우울해지는 것이 싫다. 너무 싫어서 나의 온갖 창의력과 기지와 기도로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전 청소년 시절에는 우울한 것이 멋으로 보였다. 우울하게 보이려고 외모도 그렇게 꾸미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세상을 좀 살아보고, 나이도 들고 보니 내 스스로가 우울한 상태가 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어서, 온갖 꼼수(?)를 쓴다.

주 동문은 독특한 이력의 화가다. 원래 전공은 물리학이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물리학은 딱 거기까지였다. “1980년대 초 내가 과학자의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종교를 성찰하면서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봤지요.”

우연히 샌타모니카 칼리지의 미술강사를 만나 드로잉 과목을 수강한 것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UCLA 대학원에 포트폴리오를 제출, 마침내 입학허가를 받아냈다. 미술 석사학위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문의: sunheejoo@me.com

취재=홍선례(음대 70)

장수인(음대 76) ‘인류평화훈장’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 앞장



장수인
음대 76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장수인(음대 76) 동문이 유엔 산하 비정부기구인 세계교류연합(World Distribution Federa-

tion·WDF)로부터 ‘인류평화훈장’을 받았다. “그동안 함께 보은행사에 힘을 보태 주신 서울대 동문 및 한인사회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장수인 동문은 오랫동안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행사,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 꽂기 등 보은행사를 지속해 펼친 공로가 인정돼 이날 훈장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20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수기와 사진들을 수집해 ‘Our Heroes’란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 주류사회에 감동을 줬다.

장 동문은 “자필편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과 감동이 컸다. 문필가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이들의 보은에 앞장선 단체 지도자들이 세계교류연합(WDF)으로부터 감사장과 훈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ion·WDF)로부터 ‘인류평화훈장’을 받았다.

지난 7월 11일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뉴욕주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WDF의 이재학 의장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참전용사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장 동문과 보훈처장, 보훈병원장, 참전용사 총회장, 터키 커뮤니티 대표 등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뉴욕주 한국전쟁참전협회의 살 스칼라토 회장의 개회사와 한미 양국 국가 제청으로 시작됐다. 스칼라토 회장은 미 해병 1사단에 배속돼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베테랑이다.

장 동문은 “그동안 여러 행사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나눴은 참전용사분들의

문장은 아니지만 참전용사분들이 손수 쓰신 마지막 기록물로서 그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감사해했다.

뉴잉글랜드 전 동창회장인 김정선(문리대 66) 동문은 “15년 넘게 지역 한인사회와 미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온 장 동문의 노력이 빛을 본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장 동문은 한국정부로부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상(노숙자 지원) 등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필라모니아 보스턴 오케스트라 대표로 음악 및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문화공공의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취재=김정선(문리대 66)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양수진(간호대 80)의 아웃도어 라이프 코로나에도 탈 없어 ... 자연 속 DNA 회복이 매력 산행에서 얻은 삶의 값진 교훈은 '겸손'

7월의 첫날은 공교롭게도 '코비드 확진' 판정을 받은 선배의 '장봐주기'로 시작됐다. 독립기념일 연휴 캠핑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낭패람. 열이 펄펄 끓는다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서둘러 마켓에서 1주일 생존에 필요한 식품을 플라스틱 백에 담아그 집 앞에 배달까지 해드렸다. 그리고는 유타를 향해 액셀을 밟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일행과 함께 밤새 달려 새벽 5시쯤 목적지인 아치스(Arches) 국립공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제서야 코비드 걸린 선배가 생각났다. 피시시 웃음이 절로 나왔다. 바이러스의 출처는 아무래도 LA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디너인 것 같다. 그런데 그날 내 양쪽에 앉은 분들은 죄다 걸렸다. 나만 빼고. 양쪽에 '바이러스'를 끼고도 나만 무탈한 것은 아무래도 내가 '아웃도어 홀릭' 덕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주변에선 나를 '아웃도어 홀릭'이라고 부른다. 주말만 되면 가만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다. 일행이 없으면 혼자서라도 캠핑장비를 꾸려 떠난다. 얼마전엔 LA 인근의 명소 카탈리나 아일랜드에서 '나홀로' 2박3일 백팩킹으로 16파운드 배낭을 지고 트랜스 카탈리나를 더 험한 지름길로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니 '아웃도어 중독'이라고 불릴 수 밖에. 비아냥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알코홀릭'이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웃도어의 매력은 자연 속 힐링이라고 말하지만, 내겐 캠핑을 하며 산행과 산악 자전거를 통해 자연을 즐기는 것은 창조주가 주신 자연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DNA를 찾아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공간에 텐트를 치고 신선한 공기를 폐 속 깊숙이 들이마시며 자연속에 머물면 오로지 나만의 오붓한 시간이 완성된다.

골프를 칠 때도 멋진 산만 보이면 내눈은 그곳에 구름처럼 머물러 그때부터 골프는 완전 뒷전이 되고만다. 대자연의 감상하다 보면 엔돌핀이 펄펄 솟구치고 자연속에 녹아드는 내안의 DNA가 살아나와 숨쉬는 것을 느낀다. 코로나 감염이나 전과 걱정도 없다.

그래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며 결코 쉽지 않은 직업(nurse practitioner)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웃도어 활동에 힘입은 바크다고 믿는다.

오랜만에 찾은 유타의 아치스는 역시 국립공원 타이틀이 붙을만한 곳이었다. 아치스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은 Fiery Furnace(이곳을 가려면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일행들로부터 감탄사가 쏟아져나왔다. "옛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 "신이 미쳤다"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 "멋진 신세계" "끝이 없는 신비" "판타스틱~".

신이 밟았다는 아치가 2,000개가 넘는다니 그 장관은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구름이 낮게 깔리면 그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치스는 낮과 밤이 확연히 다르다. 밤에는 별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른바 '스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유타주 아치스 국립공원에서의 산행. 산은 내게 늘 겸손을 가르친다.

타게이징(stargazing)'이다. 무수한 별들이 바로 내 눈 앞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반짝인다. 약간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진짜 내 몸이 별들 사이에 두둥실 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자정이 넘어 잠들 무렵이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텐트에 덮개를 씌어야 했다. 한여름 사막에 강한 빗줄기... 이 역시 신의 눈물이 아닌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찾은 곳은 캐년랜드(Canyonlands). '지구의 시간은 그게 언제였든 캐년랜드 협곡의 한 층으로 기록돼 있다'는 곳이다. 길고 긴 시간을 눈으로 보기 원한다면 Island in the Sky를 찾으면 된다. 전문 포토그래퍼들이 일출을 포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광활하게 펼쳐진 메사(mesa)에서 인간의 한계를 배우는 한편 자전거를 타고 싶은 찻집을 느끼기도 했다.

가블린 밸리(Goblin Valley)에선 마치 우주에서 내려온 어린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후두(hoodoo)라고 불리는 이곳의 '도깨비 바위'들이 특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적당한 크기다.

너무 작으면 볼품이 없고, 너무 크고 높으면 올라가기 위험한데 여기는 딱 사람 크기의 두배 정도여서 올라가서 놀기도 좋았다. 마지막날 찾은 곳은 '유타의 숨은 보석' 캐피톨 리프(Capitol Reef) 국립공원. 정말 장엄한 대자연의 품 안에 속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곳이다.

여기저기에서 암각화(petroglyph panel)를 찾아 보는 재미도 있다. AD 1500년 쯤 그려진 길로 추정된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깎아 놓은 벽에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인디언들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이렇게 나의 7월은 유타(3박4일)를 시

작으로 팜스프링스 골프 트립(1박2일), 애로헤드 캠핑(1박2일) 등으로 이어져 한달 동안 5박8일을 바깥에서 보낸 셈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내겐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해 피곤함을 거의 못느낀다.

산은 내게 겸손을 가르친다. '아웃도어 홀릭'이라고 아는 체를 했다가는 꼭 탈이 난다. 3년 전 쯤 얘기다. 동창회 가족 캠핑이 킹스캐년 국립공원에서 있었는데, 첫날 산악 자전거를 혼자 타다가 꿈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둘째날 수바루차를 끌고 오프로드(off-road)를 가보았다. 혼자서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 큰 바위들로 가득찬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이다. 간신히 두개의 큰바위를 내려갔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렵도 없었다. 좁은 길에서 차를 간신히 돌려 나오려는데 자동차 왼쪽 바퀴가 벼랑 끝에 걸렸다. 그야말로 혼비백산, 큰나무로 자동차 뒷바퀴를 받쳐놓고, 자전거를 내려 달리는데 꿈은 걱정도 안되었다.

간신히 빠져나와 911을 걸었다. 전화가 터질리 없었다. '자전거야 나살려라' 하고 한참을 도로쪽으로 나와 간신히 연결이 됐다.

큰 트럭을 몰고온 레인저의 차에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현장에 돌아왔는데 두 레인저가 마치 '너, 미쳤냐'하는 표정을 지었다.

최악의 경우 헬기를 불러야 하는데 1,000 달러 넘게 들 것이라며 잔뜩 겁을 줬다. 다행히 재주많은 레인저를 만나 헬기의 도움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경비는 0달러.

이 길은 원래 '블랙 다이아몬드', 곧 초자가 다니면 위험한 곳이다. 도로 입구에 사인이 붙어있는 걸 내가 지나쳤던 것이다. 산을 좀 안다고 건방을 떨다가 하마터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 하기도 했다.

산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르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

나는 산에서 삶의 교훈을 얻는다. 그런데 코비드 걸린 선배는 지금쯤 관찮아졌는지 걱정이 된다.



김수영
사대 57
시인

동창회보 편집고문으로 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처음엔 거절했으나 꼭 써 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필을 들게되었다.

올해 이곳 나이로 84세가 되었다.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남지 않으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매달 동창회보를 받아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껏 동창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고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내 형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종신이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체크를 보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후배님

내가 종신이사가 된 까닭

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얼마전에 '아름다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수필을 쓴 적이 있다. 물론 영화의 제목(A Beautiful Mind)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처형되어 죽어 갔지만, 그 중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 유대민족의 전통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지 참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다.

독일군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었다. 그 양심을 없애려고 나치는 유대인들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몇 개만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아무 데나 배설했고, 배설물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은 보며 독일군의 양심은 점점 사라져갔다.

수용소 생존자들은 대개 인간다움을 잊지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매일 4시 반이 되면 수용소에서 한 사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씩을 제공 받았

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받아 조금 먹고 나머지 물을 아껴 세수했다. 그리고 최후의 남은 물을 조금 사용해 옷 조각으로 이빨을 닦고 수용소에서 발견한 유리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를 했다.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을 잊지 않겠다는 인간 존재의 몸부림이었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항거는 그런 인간다움의 몸부림이었다.

'짐승 죽이기'는 쉽지만 '인간 죽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독일군은 유대인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이 되기를 원했지만, 끝없이 인간다움을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은 죽더라도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죽기를 원했다. 인간다움의 선언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독일군은 처형자들을 끌라냈다. 그때 잘 면도된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더럽지만, 분명히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다. 무자비한 나치도 짐승은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인간은 쉽게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결

과는 정반대로 엄청나게 달라 질 수가 있다. 포르투갈의 유대계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조용히 사과나무를 심는다'란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되는지 모른다. 특히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주는 말이다.

영화 '아름다운 마음'은 실제 살았던 인물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존 내시의 일생을 그린 영화이다. 아내의 지극정성 보살핌으로 정신분열증을 이겨내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내용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도 스스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친 결과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자기 자신이든 제 삼자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을 낳게 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밝아지리라 기대해 보면서 나부터 아름다운 마음 갖기를 결심해 본다. 노년에 더욱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위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김광현
미대 57

'빛과 어두움의 화가' 렘브란트(1606-1669)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견되는 역대 최고의 화가이며 반 고흐와 함께 네덜란드의 독보적인 화가로 꼽힌다.

그가 살았던 네덜란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당시 사상적으로 자유로워 개신교가 번창했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한 철학자 스피노자 같은 범신론자도 교회로부터 파문은 났으나 화형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런 분위기 탓에 종교전쟁에 시달리던 인접국가들로부터 많은 지식인들과 미술가들이 모여 들었다.

이런 사회구조에서 성장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인 스와넨버그와 라스트만의 문하생이 되었다. 인물화의 거장

인 루벤스의 영향을 받았던 렘브란트는 착실한 기독교도로 성서의 주제 개념을 정확히 표현했고 인간심리의 심층적 연구로 강렬한 빛의 그림들을 그렸다.

초상화, 풍속화, 유화, 소묘와 동판 부식법인 에칭(etching)화 등 2,000여 점과 자서전적인 자화상 작품들을 남겼다.

영국 화가 오닐은 렘브란트는 얼굴 표현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는 자화상을 카메라와 비슷한 거울의 투영으로 그렸다고 했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너무 사실적인 것은 실제로 자신의 얼굴을 투영해 평면거울과 오목거울을 서로 마주 배치해서 처음엔 빛을 입사각 그대로 반사하는 평면거울로, 다음엔 얼굴에 빛을 모으는 오목거울에 반사돼 캔버스에 투영된 윤곽을 따라 그림을 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얼굴에 반사된 빛이 오목거울을 지나면 180도 거꾸로 된 얼굴형태가 되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타 교수는 "거울로 투영된 영상을 그대로 그리면 빛의 직진에 의해 물체의 영상이 거꾸

로 돼 화가들은 먼저 윤곽을 그리고 바로세워 사물과 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빛과 어두움을 표현한 작품들은 렘브란트만의 화풍은 아니다. 미술사를 통해보면 기원전 그리스와 비잔틴 미술, 11-12 세기의 로마네스크, 14-16세기의 르네상스, 16-17세기 중반의 고전주의, 19세기 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그리고 프랑스의 살롱 전에 까지도 화가들은 빛과 어두움의 2분법을 사용했다.

그의 자화상 그림 중 하나인 기수(旗手, The Standard-Bearer, 28" X37")는 스페인과 80년 전쟁 중 렘브란트가 군인기수 복장을 한 작품이다.

'감각 5부작'(Five Senses)은 렘브란트의 풍유(allegory)적인 작품이다. 유럽을 휩쓴 전염병에 착안해 '무의식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각, 후각, 청각, 미각,촉각을 그렸다.

'미각'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후각'은 2015년, 뉴저지 볼룸필드의 한 주택에서 발견돼 800 달러에 팔렸다.

빛과 어두움의 화가 렘브란트

이 그림은 수집가 카플란이 무려 400만 달러에 구입, 소장하고 있다.

렘브란트는 '십자가에 달림', '갈릴리해의 폭풍' '병 고치는 예수' '눈 먼 삼손', '돌아온 탕자' 등 기독교적 작품과 의과의사회 부탁으로 그린 '해부학 강의' 등이 있다.

한편 1637년, 30년 전쟁에서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승리해 프랑스 여왕이 암스테르담 기념방문으로 2년에 걸쳐 완성한 야경(夜警)은 모나리사, 최후의 만찬, 시스틴 성당 벽화와 함께 불멸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작품표현은 근엄, 절제 및 규율성으로 빛과 어두움의 인물을 마치 '서치라이트'의 강한 빛의 표적 투사와 같이 호광성(好光性)과 어두움을 중시했다.

그후 1750년경 전통적인 회화기법의 신고전주의(Neo-classicism), 19세기 자유, 사랑 및 자연을 중시한 낭만주의(Romanticism)와 자연광선요법의 시초인 인상주의 미술(Expressionism Art)로부터 현대미술의 대변혁이 일어나게된다.



김주혜
음대 06

막내 학번에게 쏟아진 사랑

조금 더 나은 교육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유학을 선택했을 때, 무대를 진심으로 즐기는 문화, 무대에서의 긴장감을 즐길 줄 아는 이곳의 교육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생소하게 다가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만을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해오던 나에게 이곳의 따스함과 각각을 고유한 자신만의 예술가로서 인정을 해주는 문화가 겨우 나에게로 스며들 때쯤 나는 귀국을 결심하고 한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야만 했다.

한국에서의 적응이 결코 쉽지 않았다. 물론 처음 사회생활이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몇번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지만, 늘 돌아오는 건 어린 나이임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부조리한 관념들,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보기좋은 포장지에 쌓여진 억압감들 뿐이었다.

평형적인 관계에서 예술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함께 나눌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겨우 익숙해질 때였기에, 한국의 수직적인 관계와 생활들이 점차 나에게 스트레스를 크게 주었다.

그런 것들로 인해 너무 사랑해서 시작하게 된 음악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로 미국 땅을 다시 밟게 돼 내겐 크나큰 축복이자 행운이었다. 지난 5월 열린 남가주총동창회 모임에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날 참석자 가운데 내가 가장 어린 학번이었다.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직접 먼저 인사해 주시기도 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 중 최고 학번 선배

님을 만나뵙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손주분들 얼굴이 프린트된 넥타이를 하고 오시고는 후배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고 환영한다고까지 하셨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게다가 저녁식사 줄에서 서신 많은 선배님들은 노래 너무 잘 들었다며 부족한 실력이지만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며 많이 먹으라 배려해 주셨고, 음대 선배님들은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고 한순간에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후배를 맞아 주셨다.

그 자리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못했지만,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으로 나를 반겨주며, 인정해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그날의 일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끔 했다.

한국땅이 아닌 타지에 살고 계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사회 일원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많은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혹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있는 서울대 출신들이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있었을 남모를 부담감, 또 머나먼 타지인 이곳에서 정착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까지, 어느 한 부분조차 당연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었고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노력과 열심에 정말 대단하고, 존경심을 가지기까지 하였다.

유학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들, 그리고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늘 먼저 남을 배려해주는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번 남가주 서울대 동문회에서 '왜 이분들이 사회에서 존경받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항상 배우시려는 자세와 남을 향한 배려, 선배를 향한 존경과 후배를 향한 사랑. 보여주는 삶의 지혜와 걸어가는 길을 보며 후배 된 우리가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잘 따라 갈 수 있길 바라본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파이 근삿값의 날’

전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화학·물리 등 과학분야 올림피아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메달잔치로 치러진다. 일본도 상위권에서는 비껴나 있다. 미국은 말쑥감치 중위권으로 쳐져 경시대회가 열리는 해엔 머쓱해진다. 그런데도 노벨상 만큼은 미국이 나홀로 수퍼파워다.

선진국 클럽 OECD 회원국은 모두 34개국이다. 노벨상에 관한 한 한국은 그러나 옛 소련연방이었던 에스토니아와 함께 꼴찌다. 멕시코도 화학상을 포함해 수상자가 3명이다.

‘노벨상 최빈국’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성적표다. 노벨상 최다 수상국가는 미국으로 무려 331명이나 된다. 중국은 11명의 수상자 가운데 평화상과 문학상을 뺀 나머지 9명은 모두 미국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이중국적 과학자들이다.

미국은 왜 노벨상 시즌만 되면 신바람을 낼까. 그 이유를 6.02×1023에서 찾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10에 23제곱을 해서 다시 6.02를 곱해야 한다면 도시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 숫자는 시대를 너무 앞서 살았던 불운한 천재과학자의 이름을 따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부른다. 그는 원자나 분자같이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알갱이들을 ‘몰(mole)’이란 단위로 묶었다. 1몰이 바로 6.02×1023개가 모인 숫자다.

몰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개념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 ‘몰의 날(Mole Day)’이다. 숫자 뒤편의 1023은 10월 23일, 앞의 숫자 6.02는 이날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오전 6시02분부터 오후 6시02분까지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이날을 축하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가 펼쳐진다.

복잡한 화학 공식을 축제처럼 가르치니 머리에 쑥 들어오게 된다. 몇해 전 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브라이언 코빌카

교수도 ‘몰의 날’을 통해 화학에 흥미를 느꼈다고 토로할 정도다.

‘몰의 날’ 공식 마스코트는 두더지다. ‘몰’에는 두더지란 뜻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안해 시작됐다고 한다. 슬로건도 흥미를 끈다.

두더지의 습성에 빗대 ‘우리는 화학에 구멍이를 판다’에서부터 ‘두더지는 영원하다’ ‘두더지 특급’ 등 007영화를 패러디한 것도 있다. ‘두더지의 광란’은 대학농구 토너먼트를 일컫는 ‘3월의 광란’에서 따왔다.

미국엔 ‘파이의 날(Pi Day)’이란 것도 있다. 매년 3월 14일엔 파이를 먹으며 그 둘레를 재서 왜 원주율이 3.14...가 되는지를 배운다. 이처럼 암기 위주 교육이 아닌 창의력 개발에 힘을 쏟는다. MIT는 매년 합격자 발표일이 3월 14일이다.

7월에도 수학과 관련한 날이 있다. 이른바 ‘파이 근삿값의 날(Pi Approximation Day)’이다. 분수 7분의 22가 파이의 근삿값이므로 7월 22일이 기념일

이다.

언젠가 할리우드의 톱스타 카메론 디아즈가 방송에 나와 상대성이론이 어떻고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지식을 풀어놔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바람녀’로만 알고 있었는데 뜻밖엔 개념있는 여성이어서 새삼 다시 보게 됐다. 그 역시 ‘두더지의 날’과 ‘파이의 날’ 등을 통해 과학이 자신의 삶에 녹아있었던 것이다.

과학과 관련해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 왜 이 나라가 노벨상을 독식하다시피 하는지 알만하지 않을까.

올해엔 왠지 한국도 노벨상을 배출할 거 같은 예감이 든다. 서울대 동문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기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지 않은가.

미국에 있는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에도 노벨상 후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적지 않다. 알고 보면 허준이 동문도 한국계 미국인이다.

〈편집고문〉

바흐의 첼로 조곡과 K의 추억 카잘스의 연주 들으며 아쉬움과 회한이 물밀듯



이건일
의대 62

바흐는 6개의 무반주 첼로 조곡(Six Cello Suites, BWV 1007~1012)을 작곡했는데 카잘스가 연주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로스트로포비치나 요요마의 연주도 좋아 한다.

내가 다 늦게 미국에 와서 다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어느날, K군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이번 시카고에서 공연을 하니 오라는 내용이였다. 그의 결혼식 이후 두어번 만나보고는 오랜만에 나누게 되는 대화였다.

“지도를 보니 너 사는 데가 시카고에서 별로 멀어 보이지 않으니 나 좀 만나러 이곳 오해여 공항에 오라”고 말하길래 “너도 나 사는 데가 시카고에서 가까운줄 아는 모양인데 차로 적어도 4~5시간 거리야. 그리고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 수련의가 어떻게 갑자기 이틀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냐”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럴 줄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공연을 보러 갔어야 했는데, 참으로 후회가 된다. 사는 것은 후회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K군과 나의 인연은 예과 1학년, 막대 학생이 되던 날 청량리 교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친구 다섯명이 어울려 다니게 됐는데 우리는 등산, 캠핑, 여행, 영화관람, 마이티, 브릿지 게임, 화투, 당구, 술마시기 등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특히 여학생들과의 그룹 미팅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 중 K와 나만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 둘이서 많은 시간을 음악 이야기나 감상으로 보냈다. 시향이나 KBS 교향

악단 정기 연주회 등이 있으면 그것들을 찾아 다녔고 특히 이대 음대 정기 연주회는 수도 없이 갔다 왔었다(!).

K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어서 고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됐는데 의대 재학시절에는 효자동 전차 종점 근처에 있는 제법 큰 한옥에서 누님부부, 두 여동생과 살고 있었다.

그 집에는 여분의 방이 있어서 우리들은 학교수업을 땡땡이 치거나 함께 모여 시험 공부할 때 자주 이용하는 장소가 됐다.

그가 수업에 안 왔을 때 그의 집으로 가 보면 그는 첼로 연습 중이었다. 우리는 카잘스의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즐겨 들었다. 이 곡은 K 뿐만 아니라 나도 좋아했던 곡이기도 하다. 카잘스는 그의 말대로 약간 거친 듯 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진솔한 연주였다고 생각한다.



잡음이 가득한 오래된 78회전 축음기판 레코딩이었지만 그 음악만은 살아있었다. 지금도 이 곡을 들을 때 마다 그를 생각한다.

몇 년 전 드디어 카잘스 연주가 수록된 CD를 하나 구했다. 지금도 그를 추억하며 들곤 한다.

K의 집에 모여 밤새워 가며 시험공부할 때면 그의 누님이 야식으로 경상도식 김치 국밥을 내어 오곤 했는데 원래 나는 서울 출신이라 항상 담백한 음식에만 익숙해 있다보니 그 맵고 짠 경상도식 음식, 특히 부산식 김치, 젓갈 잔뜩 넣고 빨갛고 맵게 만든, 그 자극성 가득한 김치나 그 김치로 만든 김치국밥은 하나의 문명충돌(?)이었다.

그러나 아주 맛있었다. 어쩌다 이 음식을 먹을 때면 K군이 떠오른다.

의대 3학년 때 그가 의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지휘자로 임명돼 단원을 모집하게 됐다. 내가 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오합지졸을 모아 놓았다. 의대 공부 중에 어디 그리 악기 연습할 시간이 있었을까.

모자라는 파트는 그가 음대에 가서 구걸(?)해 채워 넣었는데 그렇게 해도 단원이 모자라 결국 나보고 작은 북을 치라는 것이었다. 생전 악기라고는 첼로를 석달간 만져본 것이 전부인데, 악보도 겨우겨우 볼 처지인 나 보고 말이다. 극구 사양했으나 친구 살려주는 셈치고 해달라고 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몇번 오케스트라 연습에 참여해 대중 맞춰보고 실제 연주 당일엔 그가 나에

서 어떻게 쳐야하는 지 모르겠다며 큰일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작은 북과 거의 같으니 내가 때리면 같이 때리면 되고, 내가 연주하지 않을 때 심벌 차례가 되면 내가 북채로 당신 다리를 두드려 박자를 맞춰 줄테니 걱정말라고 안심시켰다.

이윽고 연주는 시작됐고 나는 열심히 지휘자인 K를 쳐다보다 그의 사인을 받으면 내 파트를 두들겨 댔고 가끔 옆에 앉은 L군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하다가 그 만이 연주를 하게 되면 북채로 그의 다리를 쳐서 장단을 맞춰줬다.

연주 중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낄낄거리며 웃는 것이 아닌가.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을 모든 관객들이 보았고 너무 우스워 음악회가 아니라 마치 코미디 쇼 무대 같이 되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우리 파트는 그 곡 하나로 끝이 났고 오케스트라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서늘해 진다. 후배 L군은 오하이오주 북쪽에서 개업을 하다 은퇴해 지금은 남가주에서 살고 있다. 어쩌다 만나면 그 때 이야기를 하며 웃곤 한다.

K군은 뉴욕근처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마치고 개업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가끔씩 들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수련을 끝내면 시간을 내어 그를 찾아가 보려고 잔뜩 베풀고 있었는데... 더구나 그의 사망소식도 장례식이 끝난 뒤에나 들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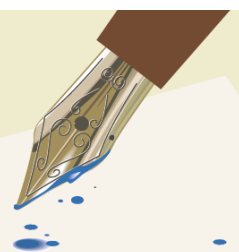
산다는 것은 아쉬움과 회한과 못 이룬 일들에 대한 미련 등으로 이뤄지는가 보다. 그가 간지도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된다.

그러나 내 추억 속의 K는 긴 앞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콧등에 내려온 안경을 다시 고쳐 쓰는 흥안의 미청년이요, 같이 술 한잔하며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를 논하던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 겸 지휘자다.

자, 이제 카잘스가 연주하는 바흐의 첼로조곡을 다시 들으려 한다. K를 추억하며.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허밍버드 탄생일지 아주 작은 두개의 연푸른 새알, 50일만에 '푸드득'



김영희
미대 65

나의 아주 작은 마당에 장미나무 가지 사이에서 장미잎으로 살짝 가려진 새 둥지를 발견한다. 허밍버드의 집이다.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의 삼각형 정점에 깃털과 마른풀, 잔 나무가지로 둘러진 새집. 그안에 아주 작은 두개의 연푸른 새알이 있었다. '어떻게 튼튼하고 맛있는 집을 지었을까?'

4월 18일 어미새가 알을 품었다. '나



는 집짓는 것도 못 보았는데 이렇게 포근한 집을 지었니?'

4월 19일 손녀의 백일잔치를 위해 텍사스 델러스에 가서 일주일 지내다 왔다.

4월 28일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새집을 들여다 본다. 어미새는 알을 품고 또 품고 정성이 지극하다. '꿀물 먹었니? 에미 너는 점심 안먹어?' 외출 후 돌아온 어미새는 날개짓을 크게 하며 푸드득 소리를 내고 작은 가지에 앉는다. '알았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어미새는 왼쪽으로 푸드득, 오른쪽으로 푸드득 하고 큰소리를 내고 날며 안

전을 확인한 후 둥지에 들어가 깊이 앉아 머리만 보인다.

어미새는 알들을 품고 또 품고 또 품는다. 며칠후 어미새는 자기 몸의 두배나 되는 긴 새털을 가져온다. 화씨 97-98도 온도를 유지해야 알에서 깨어나올 수 있다.

하루 늦게난 알까지 깨어나려면 두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비오는 날은 외출도 없이 하루종일 꼼짝 안하고 알들을 품고 있다.

5월 6일 드디어 두 알 중에서 첫 새끼가 깨어났다.

어미는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있다. 하루뒤 동생도 알에서 깨어났다. 가는 바늘 같은 털이 덮힌 아기새들.

5월 12일 주황색 주둥이 하나가 서 있다.

둘째는 털만 보인다. 돌아온 어미새가 먹이를 한순간에 아기새 입에 넣는다.

5월 13일 두개의 주황색 뾰족한 입이 나란히 하늘을 보고있다.

어미새가 열심히 품고 있다. 아기새



들 먹고는 똥을 뽀어낸다.

둥지 주위로 까만 똥이 쌓이고, 장미 잎에도 벽에도 똥이 떨어져 있다.

'어미가 잘 먹고 있구나.'

5월 19일 아기새들이 눈을 떴다. 참새보다 큰새가 나의 마당으로 들어와 이리 저리 날아 돌아 다닌다.

'이놈! 어디를 어슬렁 어슬렁. 요놈! 뭐어이' 그 새를 쫓아버린다.

안개비 내리는 날에도 어미새는 날개를 꼭꼭 부치고 새끼들을 품고 앉아 있다.

어미새의 긴 외출에도 열심히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기새들은 '엄마 빨리와! 배고파 엄마!' 하는 것 같다.

5월 22일 아기새들이 입을 벌리고 어미를 기다린다.

어미새가 둥지 끝에 앉아 초속으로 먹이를 형에게 먹인다. 초고속으로 동생도 먹이고 어미새는 날아간다.

몸집이 큰 형님이 움직이면 동생은 같



이 둥지를 돈다.

형님 몸이 밖으로 나오고 눈이 초롱하다. 아기새의 몸털도 윤기가 흐른다. 어미의 긴 외출. '엄마 도망 갔니?' 하고 아기새들에게 묻는다.

어미가 긴시간 동안 안 돌아온다. 들이 대는 나의 카메라도 자기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것 같다.

5월 24일 아기새들이 주둥이로 가슴도 쪼아 보고 날개도 쪼아보고 활동이 활발하다.

아기새들이 점점 몸을 가다듬고는 푸드득푸드득 움직인다. 형님부터 시작이다.

동생도 몸다듬기를 한다. 점점 어미를 닮아가고 있다.

5월 27일 아침 일찍 아기새들이 몸을 둥지에서 빠져 높이 앉아있다.

8:00 어미새가 오고, 초를 다투는 속도로 먹인다. 그후 두번 더 어미새가 왔다. 눈깜빡할 사이 먹이를 먹이고 날아



간다.

11:00 두 아기새들이 둥지 끝에 앉아 목과 날개를 쪼아보고 날개짓도 해 본다. 새들의 몸단장이 대단하다.

11:40 어미새는 나의 마당에 있는 이 꽃 저꽃에서 꿀을 빨고 새끼들에게 초고속으로 먹인다.

아기새들의 날개짓이 더욱 활발하다. 자꾸 날개짓을 한다. 자꾸자꾸 한다. 그리고 나서 형제는 둥지끝에 앉아 쉰다.

12:00 어미새가 또 왔다. 초고속으로 먹인후 날아가고.

형, 동생 아기새들은 목과 날개를 쪼고 날개짓에 바쁘다.

허밍버드는 어떤 새도 없는 기능을 갖고 있다.

헬리콥터 같은 성능으로 상하 전후 좌우로 나는데 다른 어떤 새도 뒤로는 날지 못한다. 혼자서 한번에 500마일을 나르는 철새이다.

'아하! 알겠다.' 어미새가 초고속으로 먹이는 고단백 벌레먹이, 그래서 머리, 목과 날개의 앞을 그렇게 많이 쪼았구나!

그렇구나. 멀리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날아가려면 그런 먹이를 먹어야지. 아 자연의 순리는 그렇구나.

1:00 일 하다 둥지를 보니 동생만 남아 있다. '형은 날아 갔니?' 동생은 앞도 쪼아보고 위를 보며 앉아 있다.

1:20 다시 정원 일을 일 하다 보니 빈 둥지이다.

푸드득 동생이 날아 오르고 ... 잠깐 사이 쇠 꽃바침대에서 쉰다.

더 한번의 시도 후 더 높이 날아오른다. 약 5주간의 어미새의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도 초롱 초롱한 아기새들의 눈망울이 보이는것 같다.

동생 아기새의 비상!

Bravo!



HANMI LAW INTERNATIONAL 한미국제법률사무소

이종건
(경영대 84)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Mobile. 010-6758-2248 **Email.** starforce5824@gmail.com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Mobile.** (714) 878-6431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Wealthy & Wise

▣ Baltimore ▣ Honolulu ▣ Seoul
▣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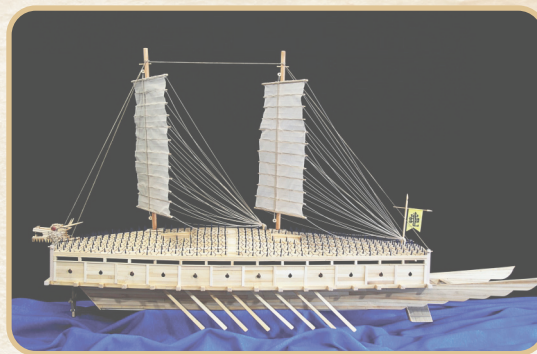


미국 독립기념일 워싱턴
거북선 퍼레이드

미주 서울대인의 정성이 이순신 거북선을
세계에 빛냅니다



거북선 모형 제작 장면



송금 방법 \$100 또는 자유 금액 수표를
아래 명의와 주소로 우송

보내실 곳 Yisunsin America Institute
P.O.Box 9584, McLean, VA 22102



노명호 (16대 회장단) 특별기여 \$1,000

신동국 (CA - \$200) 박은호 (MD - \$200)
김기현 (NC - \$200) 서휘열 (VA - \$1,000)
은봉수 (VA - \$200) 김중호 (MD - \$1,200)
서영 (MI - \$100)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고평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고평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욱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해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중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미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영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고중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정태(의대 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민홍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동순(법 59)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김건진(문 62)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근(농 78) 김동산(법 59)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은숙(미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학철(의 55) 노명호(공 61) 문병길(문 61) 박영옥(사 55)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종수(수 58)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혜란(미 70) 서치원(공 69)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심재호(공 75)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윤경민(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미정(의 78) 이범모(치 74) 이법식(공 61) 이서희(법 70)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원익(문 73) 이장길(치 63)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창무(공 54) 이청광(상 61)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임낙균(약 64) 임동규(미 57)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동석(문 66) 장원경(미 73) 전낙관(사 60) 전월일(의 77)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인환(법 54) 정진우(의 66) 정형민(문 71) 조선주(간 69) 지종근(농 56) 차종환(사 54)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종철(치 62) 한효동(공 58)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고애자(음 57) 권영국(상 60) 금영천(약 72) 김기택(수 81) 김문경(약 61) 김병권(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영길(문 62) 김영숙(약 53) 김완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유순(간 64) 김현중(공 63) 리준무(음 65) 문석면(의 52) 박건이(공 60) 박상원(음 69) 박수안(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방준재(의 63) 배정희(사 54) 서량(의 63) 석창호(의 66) 선종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춘희(간 56) 양명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순(문 67) 유재섭(공 65) 윤병남(사 62) 윤희정(문 59)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해청(약 62) 전성진(사54) 정해민(법 55) 조남천(사 59) 최영태(문 67) 최한용(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용(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행(의 58) 허영자(약 6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김기남(간 67)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주창준(의 50) 네바다 정상진(상 59) 룩키마운틴스 위장호(의 67)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인(공 88)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미시간 김정화(음 56) 김희주(의 62) 고선희(문 63)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윤희윤(의 63)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음 64) 박경용(약 63) 박서규(법 56)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전병련(공 54) 정한규(의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오계환(공 64) 이휘영(법 59) 시카고 김동희(공 66) 김사직(상 59) 김용주(공 69)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오명자(간 60) 안영학(문 57) 이덕수(문 58) 이소희(간 68)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임영신(의 56) 임현재(의 59)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최대한(의 53) 최혜숙(의 53) 한재은(의 59)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유덕영(공 57) 워싱턴DC 고우환(법 57) 권철수(의 68) 김동훈(법 56) 김명자(법 52) 김영호(공 64) 김용환(치 88)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박영철(농 64)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홍우(문 61) 서윤석(의 62)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우제형(상 54)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준(의 70) 유홍열(문 74) 이건형(수 54) 이내원(사 58) 이선구(문 65)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준영(치 74) 이해청(약 62) 장윤희(사 54) 정선주(간 68) 정원자(농 62) 조영희(문 66) 조화유(문 61) 천건희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희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환(공 56)	워싱턴주 김인배(수 59)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양용관(수 62) 이원섭(농 77) 장대홍(공 65) 전병택(상 65)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영서(상 54) 김학래(공 60) 노한순(농 56) 오경호(수 60) 이중석(의 54) 임한응(공 60) 정선휘(공 65)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이중영(음 5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신경호(의 57) 최창승(의 52) 홍성휘(공 56) 콜로라도 이정화(의 61) 테네시 텍사스 김장환(공 81)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성준(의 55)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필라델피아 김경희(생 71)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서준민(공 64)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신성식(공 56) 오진석(치 56) 윤경숙(문 59)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최종무(상 63) 하와이 안은식(문 55)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탈호(의 56)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박석규(간 59) 최용천(의 53)
--	---	---	--	--	--	---	--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Table listing general donors and amounts, including categories like 남가주, 뉴욕, and various individual names.

시카고

Table listing donors from Chicago and other region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캐롤라이나

Table listing donors from Carolina and other region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워싱턴DC

Table listing donors from Washington DC and other region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Charity Fund(나눔)

Table listing donors to the Charity Fund, including names and amounts.

광고후원금

Table listing advertising donor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장학기금

Table listing scholarship fund donor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우크라이나 기부금

Table listing donors for Ukraine relief, including names and amounts.

Brain Network

Table listing donors to Brain Network,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지부분담금

Table listing branch contribution donors, including names and amount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Form for selecting contribution amounts and options for Scholarship Fund, Charity Fund, Brain Network, and Motherland Development Fund.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중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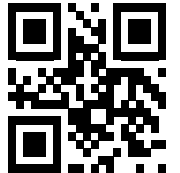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연(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재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ale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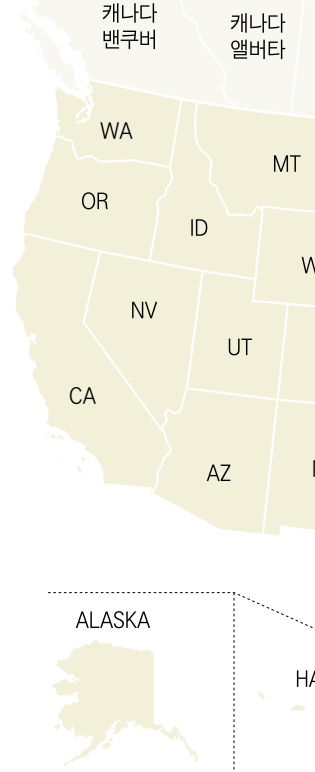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차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룩키타운티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van@gmail.com
 sphro17@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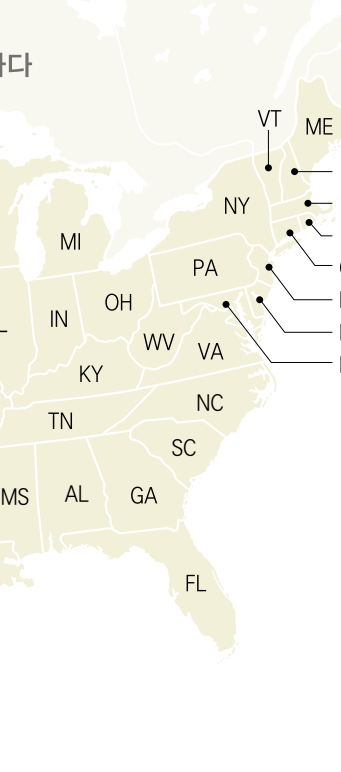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차기 회장 7/23 첫 총회에서 결정예정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김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회(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희(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이병준(상대 59)

MAKE THE WORLD BEAUTI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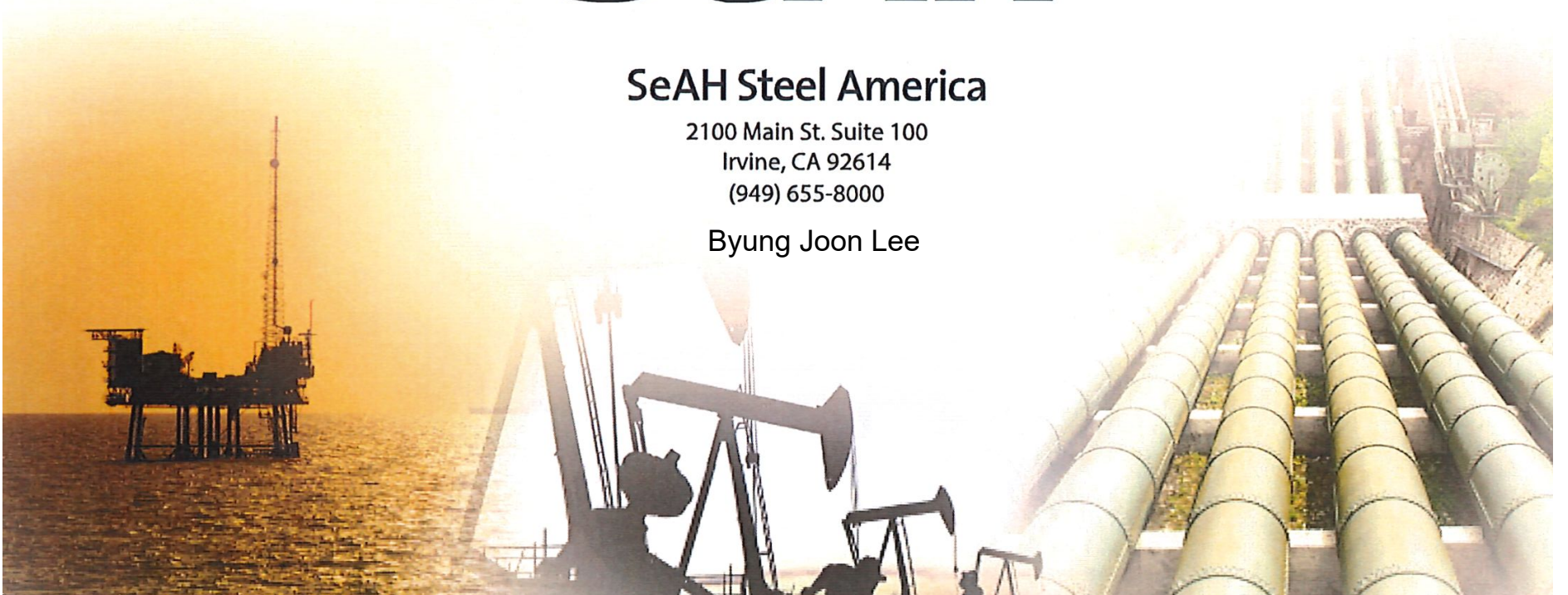


SeAH

SeAH Steel America

2100 Main St. Suite 100
Irvine, CA 92614
(949) 655-8000

Byung Joon Lee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6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6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 Fairfax Office **703-204-0022** DE & PA 지역 **267-275-9439**
- Annandale Office **703-256-6002** NJ 지역 **201-888-7456**
-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NC 지역 **917-418-3587**
-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Richmond 지역 **703-309-5755**
-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GA(Atlanta) 지역 **404-578-1426**